Weekly
공감
박정희 前 대통령 친필문서 공개
"4대강 유역 개발이 4대강 살리기 시발점"
한가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2009 09.16
No.29(통권 130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IT Korea
소원을 말해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생활공감정책으로 서민생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제안한 작은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새로운 차원의 소통이 실현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 우선 임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정부에서 우선 임대해 준다니 정말 고맙더라구요"

– 인천 서구에 사는 김창래 님 제안 정책

초등학교 1,2학년생의 등하교 상황을 부모에게 SMS로 통보

"아이가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 몇 시에 하교했는지 문자로 보내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 대구에서 맞벌이를 하는 김완섭 님 제안 정책

전통시장 소액대출 시범사업

"요즘 처럼 장사하기 어려울 때 담보없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팀 제안 정책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십시오.

www.oklife.go.kr

국민 여러분이 제안한 생활공감 주요정책

경제 분야

- 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세(9~30만원) 면제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 전통시장 영세상인 5백만원까지 연 4.5% 대출
-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분양권 등기제도 개선
-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7~30만원) 면제
-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
- 모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
- 동네 수퍼마켓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교육 • 복지 분야

- 초등 1~2학년 등하교 상황 부모에게 SMS 알림
- 저소득층 자녀 학비신청 증빙서류 제출 폐지
- 이동전화 요금감면(수급자, 장애인, 유공자) 원스톱 서비스
- 아동 필수예방접종(8종) 비용 30% 지원
- 국민임대주택에 중증 장애인 우선 임대

사회 • 안전 분야

- 민통선 출입증 발급기간 단축(60일→20일)
- 영세민 거주지역 300평 내외 동네마당 조성(88개소)
- 주민등록증 택배서비스
- 경차택시 및 여성전용택시 운행
-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재입국시 허가절차 폐지
-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로 진술
- 마트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지급
- 1회용 종이컵 회수시스템 구축 자원재활용
- 공익근무요원 야간대학 수학 허용

• 기획재정부 • 농림수산식품부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국방부 • 보건복지가족부
• 국토해양부 • 교육과학기술부 • 법무부 • 환경부 • 병무청 • 국세청 • 중소기업청

IT는 녹색뉴딜·휴먼뉴딜의 엔진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미래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제2의 정보기술(IT) 전성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IT산업이 미래 한국의 제1의 성장동력임을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IT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이명박정부의 IT비전과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IT 5대 핵심전략으로는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을 선정했다.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 IT산업 발전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약 1백9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최근 IT산업의 추세는 타 산업과의 융합이다. 이 대통령이 한국의 자동차, 조선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T와의 융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미 실현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제휴는 IT산업과 기계산업의 융합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1차 IT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나라다.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한 방송통신 융합과 미래 인터넷 분야의 발전은 무궁하다. 또한 IT인프라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테스트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불법복제 방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와 대기업 간의 공정성 제고, 소프트웨어산업 인력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소프트웨어산업은 미래 한국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IT산업 육성의 열매가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성장 개념과 차별화된 중도실용 노선에 바탕을 둔 서민경제 살리기에 IT산업이 일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IT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성장', 중산층 살리기인 '휴먼뉴딜'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녹색성장은 IT산업과 에너지기술(ET)산업의 융합이 돼야만 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녹색성장 아이템인 스마트 그리드도 결국 IT와 전력망의 융합이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원격회의 등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데 있어 IT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휴먼뉴딜과 관련해서도 IPTV를 이용한 공부방 신설, u헬스 등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IT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해줘야 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민간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자는 MB노믹스(MBnomics)의 기본철학이 IT산업에서 그 힘을 발휘할 것이다.

IT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이번 이명박정부의 IT정책이 일차적으로 완성되는 5년 후에는 IT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영원한 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G

기획특집

대한민국 경제성장 대표선수 'IT'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최강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세계 1위,
세계 IT업체들이 앞다퉈 신제품의 시장성을
시험하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국가….
대한민국은 이미 IT 선진국이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제2의 비상(飛上)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패스워드는 바로 'IT'다.

18 **총론** | IT코리아, 미래를 연다

20 그린IT 선도국 되자

23 선진국도 'Save Energy' 그린IT 열풍

24 4대강에 숨어 있는 첨단 과학

26 IPTV 내무반·와이브로 공부방… 디지털 혁명

28 굴뚝이 IT로 '우뚝'

30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 게임이 먹었다

32 소프트웨어 경쟁력 해법 "해외 시장에 있소이다"

34 정부 웹사이트는 '오픈 웹 브라우저'

36 디지털 하우스 체험 경기 파주시 '유비파크'를 가다

38 개도국에 그린IT 기부… 'IT 한류' 일으킨다

40 미국과 유럽의 미래 "한국을 보라"

42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의 목소리

44 **인터뷰** | 문방위 민주당 변재일 의원 "IT업무 총괄 조직 만들어야"

46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 '소녀시대'

48 **인터뷰** | 대통령 IT특별보좌관 오해석 "IT로 전체 산업 업그레이드"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01 **Reader & Leader**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04 **독자 공감 & 공감 퍼즐**

06 **이슈 인터뷰** |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강력한 선제 대응으로 신종플루 이겨낸다"

08 **뉴스 분석** | 추석 민생·생활물가 안정대책

10 **이렇습니다** | 오르락내리락~ 국가경쟁력 평가 이해

12 **브리핑 룸** | 지자체 통합 땐 10년간 인센티브

14 **포커스** | 동훈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
"4대강 유역 개발 박정희 前 대통령도 추진"

50 **인터뷰** |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문화대사 고두심
"제주 물 허벅에 델피 성수 담아왔죠"

52 **스포츠** |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54 **콘텐츠 파워** |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

56 **모범 감사 현장을 가다 ②** | 북부지방산림청

58 **이 사람** | '군대 가면 몸짱 된다' 입증한 국방부 이현주 주무관

59 **위클리 코믹스** | 4대강 살리기 ㉒

60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⑦

61 **공감 카툰** | 파랑새를 찾아서

62 **정책 현장** | 도박중독 예방, 정부가 돕습니다

63 **컬처 36.5** | 이병용 유작展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64 **書로 공감** |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섬 여행〉

08

52

Weekly 공감

발행일 2009.9.16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ttp://gonggam.korea.kr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서민들 빚의 악순환 끊겠다"

서민 감세·세원 확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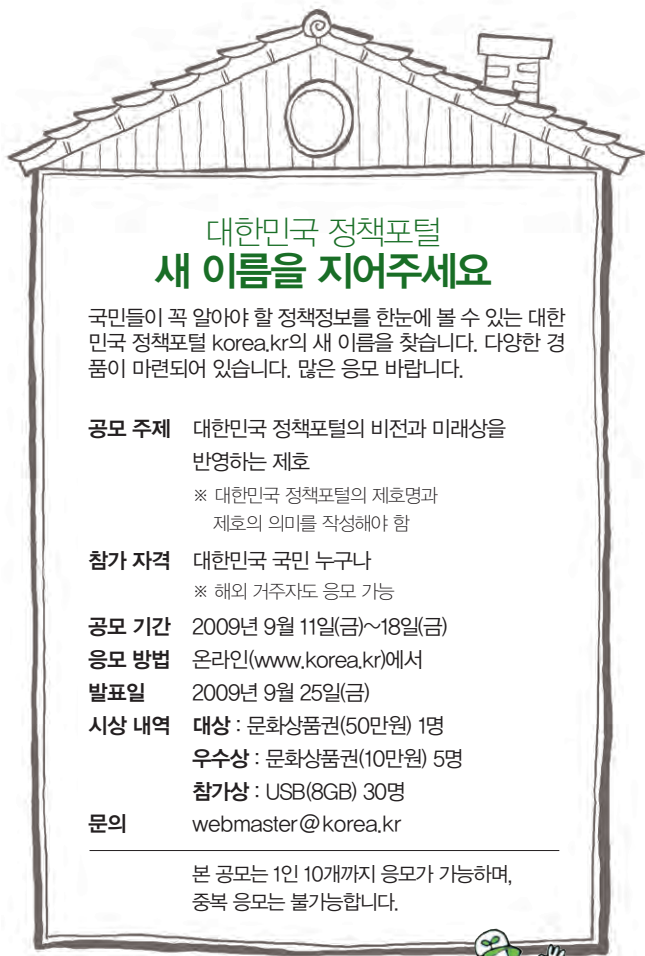
〈Weekly 공감〉 28호(9월 9일자) '기획특집–서민경제 살리는 따뜻한 금융'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 손수제작물(UCC)로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제도를 접했어요. 서민임에도 상환율이 90퍼센트를 넘는다고 하니 감동적이더라고요. 서민에게 주는 것이 몇 푼의 돈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어서 좋은 제도들이 정착되었으면 좋겠어요."_ yada's home

"저도 서민금융의 수혜자입니다. 신용도가 낮아 소액대출도 못 받았는데 서민금융119로 대출승인을 받아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도 했는데요. 저와 같은 저소득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로 혜택을 받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현 정부에 파이팅을 외칩니다."_ joohj1998

〈Weekly 공감〉 28호 '중점기획–서민 보듬는 2009 세제개편안' 기사와 관련해 독자분이 감사의 댓글을 올렸습니다.

"와~ 앞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이중으로 내거나 잘못 내서 환급받을 때에는 그 이자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처음 안 사실인데요. 그리고 회전율이 높으면 펀드의 부담금이 높아지는 것도 새로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 두루누리

Weekly 공감(gonggam.korea.kr), 청와대(www.president.go.kr),
대한민국정책포털(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등에 실린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포털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의 새 이름을 찾습니다. 다양한 경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응모 바랍니다.

공모 주제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비전과 미래상을 반영하는 제호
※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제호명과 제호의 의미를 작성해야 함

참가 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해외 거주자도 응모 가능

공모 기간 2009년 9월 11일(금)~18일(금)

응모 방법 온라인(www.korea.kr)에서

발표일 2009년 9월 25일(금)

시상 내역 **대상** : 문화상품권(50만원) 1명
우수상 : 문화상품권(10만원) 5명
참가상 : USB(8GB) 30명

문의 webmaster@korea.kr

본 공모는 1인 10개까지 응모가 가능하며, 중복 응모는 불가능합니다.

녹색생활 실천 '그린맨 찾기' 퀴즈 정답자

정답은 3명입니다

강민정(제주시 이도동)
김두용(부산 북구 만덕동)
김영희(전남 목포시 신흥동)
박천호(충남 금산군 금산읍)
백유선(충남 천안시 쌍용동)
손경원(경기 안양시 평촌동)
안혜정(전남 나주시 성북동)
유정현(경기 안산시 선부동)
이영희(강원 춘천시 사농동)
이지희(경기 용인시 유방동)
이혜진(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정명순(강원 강릉시 포남동)
최명희(전북 익산시 모현동)
하 석(서울 종로구 서린동)
황명옥(부산 사하구 장림동)
강성모(인천 남구 주안동)
김숙희(광주 북구 문흥동)
김옥이(서울 중랑구 면목동)
백남철(서울 구로구 개봉동)
백진숙(충북 청주시 용암동)
안진영(대구 달서구 이곡동)
엄미경(경북 의성군 의성읍)
육한준(경기 부천시 범박동)
이인정(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혜영(강원 춘천시 삼천동)
임재영(경남 의령군 낙서면)
최기도(대전 서구 도마동)
최의자(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양희(서울 강서구 공항동)
황은정(대구 북구 구암동)

공감 퍼즐

빈칸의 정답을 적어 주소, 연락처와 함께
9월 23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과 녹색생활 실천 머그컵을 드립니다.

〈Weekly 공감〉 27호(9월 2일자) '공감 퍼즐' 정답과 당첨자

가로 1 녹색생활 **4** 자신감 **7** 종대 **8** 소스 **10** 타미플루
세로 2 활자 **3** 공감대 **5** 신종플루 **6** 탄소 **9** 스타트

당첨자

강수정(대전 유성구 관평동)
전기영(전북 군산시 옥서면)
정진순(경북 경주시 용강동)

가 로

1.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가리키는 용어. 개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IT기술 중의 하나죠.〈36페이지에 힌트〉
4. 굳세게 버티거나 감당해내는 힘. "그는 어려운 사업체를 OO으로 살려냈다."
6. 일본의 세계적인 가전회사. 음향·영상기기, 방송기자재 등에서 앞서 나가며 우리나라 기업들과 강력한 라이벌을 이루고 있죠.
8. 분산 상태의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하여 통합되어 가는 과정. OOO효과는 하나의 기능이 다중(多重)으로 이용될 때 생성되는 효과죠.=상승효과.
9.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높이 만든 대. 통일OOO.

세 로

2. 터를 잡은 자취. 정당한 근거나 이유. "그런 OOO없는 소리를 하다니…"
3. 불을 땔 때 연기가 밖으로 나오게 만든 것. OO산업이란 IT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을 말하죠. IT산업은 튼튼한 OO산업이 수반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5. 어떤 동기에 의해 이제까지 가졌던 마음가짐을 버리고 완전히 달라짐. "그는 이번 일의 실패를 OOOO의 기회로 삼았다."
6. 디지털 방송 홍보대사가 된 9인조 인기 여성그룹. '소원을 말해봐' 'Gee'….
7. 여러 자료를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 아날로그에 대응되는 말로, 디지트(digit)는 사람의 손가락이나 동물의 발가락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강력한 선제 대응으로 신종플루 이겨낸다"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연내에 예방백신 1천만 도스를 확보하고, 항바이러스제도 국내 총인구의 20퍼센트인 1천만명분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6천명(9월 7일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10월과 11월을 앞두고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종플루 감염 우려에 대해 69퍼센트가 불안감을 나타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일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시앤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2천8백88명을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2퍼센트가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희망했다.

이 같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 대책이 시급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재희 장관에게 정부의 신종플루 확산 예방 대책과 국민 개인 차원의 예방 수칙에 대해 들었다.

신종플루 전염병의 국가재난 단계를 현재의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종플루 치사율이 일반 계절독감과 같은 0.1퍼센트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심각' 단계는 아닙니다. 전염병 국가재난 단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4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단순히 환자 발생 숫자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중환자나 사망자 발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심각' 단계에 준해서 선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거쳐 날씨가 추워지는 10월과 11월에 신종플루가 더 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환자 수를 줄이고,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잘 치료해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방백신 물량과 항바이러스제 물량은 충분한가요.

예방접종용 백신 물량의 경우 연내 1천만 도스(녹십자 생산 물량 7백만 개, 다국적 백신 제조회사 GSK 수입 물량 3백만 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연내 1회 접종 시 1천만명, 2회 접종 시 5백만명 분량입니다. 추가 물량까지 합치면 내년 2월까지 총 1천3백36만명분입니다. 또한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이미 확보된 국내 총인구의 11퍼센트인 5백31만명분 외에 연내에 5백만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행이 끝나더라도 국가 비축분을 인구 대비 20퍼센트 선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특허정지 조치를 취해서라도 수급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는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 환자가 대량 발생하고, 수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일 때 발효 여부를 검토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신종플루 백신의 우선 접종 대상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누구이고, 일반인도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전염병 대응요원, 아동,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과 초중고 학생, 군인 등인데 이들 중에서의 접종 순위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보건의료인 등 전염병 대응요원을 최우선 순위로 접종할 예정이고, 다음 순위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9월 말에서 10월 초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거점병원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거점병원 운영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초기에 준비 부족으로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거점병원과 약국에 대한 비용 지원이 미흡했고, 의료진에게 의약품과 마스크 등이 지원되지 않아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점병원과 수시로 협의하고 민관 합동 신종플루대책위원회를 마련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9월 1일 기준으로 거점병원 4백64개소, 거점약국 7백85개소를 지정했으며, 향후 거점약국의 숫자를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학교, 군대,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생활시설에 대한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단 시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및 치료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들 집단시설을 관할하는 행정 부처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부처가 소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집단 생활시설이 지킬 첫 번째 지침은 환자를 조기 발견해 격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근접 접촉자에 대해 타미플루를 선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G

글 · 최은숙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Q&A로 풀어보는 신종플루 궁금증

Q 손 소독제를 많이 쓰는데, 효과가 있나.

A 손 소독제 과신은 금물이다. 신종플루는 재채기할 때 배출되는 침이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입해 전파된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전파를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건이 안 될 경우에만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를 권한다. 둘 다 안 되면 최대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Q 신종플루에 걸리면 48시간 안에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48시간이 넘으면 위험한가.

A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증상 발견 후 되도록 48시간 이내 투약을 권고한다. 그러나 48시간이 지나도 투약하도록 한다. 건강한 사람은 신종플루에 걸리더라도 타미플루를 먹지 않고 감기처럼 사나흘 앓고 나면 완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심지어 신종플루인지 모르고 완치되는 예도 많으므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위험군(임산부, 노약자, 만성질환자)은 의사의 처방에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Q 임신부가 신종플루에 걸렸다면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를 먹는 게 좋은가.

A 항바이러스제가 임신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태아 독성이나 기형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없다. 타미플루를 제때 먹지 않을 경우 임신부나 태아에게 폐렴이나 그 합병증이 생겨 더 위중해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 타미플루를 투여하는 것을 권한다.

Q 건강한 사람도 폐렴 예방접종을 하면 신종플루 관련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나.

A 신종플루는 다른 백신(계절독감 백신, 폐렴구균 백신)으로는 직접적인 예방효과가 없다. 다만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또는 만성질환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된 후 폐렴구균에 2차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Q 신종플루 검사비용 12만원은 너무 비싸다.

A 신종플루 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하는 확진검사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본인부담 입원 시 8천8백~2만4천4백70원, 외래 시 1만7천6백10~4만8천9백40원). 단지 개인이 불안해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만 12만원이다.

한가위 물가 걱정 없도록… 성수품 공급량 두배 늘려

둥근 달만큼이나 넉넉한 주머니와 풍성한 장바구니가 기대되는 추석이 다가온다. 올 추석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맞는 첫 추석. 경기회복 속에서도 여전히 한기가 가시지 않은 서민들의 추석맞이에 구김살이 없도록 정부가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추석맞이가 우울하지 않도록 물가안정과 명절연휴 사회안전망 다지기에 나선다.

송편을 빚을 쌀, 제사상에 놓일 사과와 배, 대추, 명태 등 추석을 맞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물가관리가 시행된다. 무, 배추, 달걀 등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품들은 평소보다 최대 3.6배까지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14개 부처 합동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추석(10월 3일)을 앞두고 서민들이 물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물가관리를 실시하고 매주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 추석물가 동향을 점검키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이 나온 것은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가계소득이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물가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3±0.5퍼센트)를 하회하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상승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추석 때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의 가격 변동이 커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수준과 지표 물가의 괴리가 클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결식아동 대체급식·당직 의료기관 등 운영

'민생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한가위 나누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정부 대책은 크게 추석민생 안정과 생활물가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먼저 추석민생 안정대책으로는 '물가 걱정 없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추석을 맞아 몰리는 수요로 인해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쌀, 무, 배추 등 성수품과 이용료, 미용료 등 개인 서비스요금 등 21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또 농협과 수협 등이 비축한 물량을 풀어 16개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균 두 배, 최대 3.6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 행사를 개설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인의 실질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또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등을 강

화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그간 수시로 열렸던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추석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

더불어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전통시장 통합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소액의 농축수산물 선물 주고받기 캠페인에 앞장서기로 했다.

명절 기간 중에도 사회안전망이 촘촘히 운영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다. 추석 기간 중에도 결식아동을 위해 대체급식 수단을 확보하고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또 무료급식소들을 연계해 당번제로 운영, 추석 연휴 기간 중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이 중단되지 않게 만전을 기한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9월 10일 추석을 앞두고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찐빵을 사먹으며 상인들과 담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대출과 보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장려금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 청산을 집중 지도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1천8백9억원(4만4천명 대상)이 지급됐고, 올해 모두 2천8백2억원(6만5천명 대상)이 지급된다.

한편 생활물가 안정대책으로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kca.go.kr)에 생필품 판매가격이 정기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마련됐다. 전기, 가스, 수도 등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도 공개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해 주유소, 대리점 등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종플루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추석을 전후로 신종플루 전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추석 대이동에 따른 전염확산 방지대책을 세우고 전국의 거점병원과 약국에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비치하며 연휴 기간 중에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정해 의료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신종플루 대책도 마련됐다. 추석 대이동에 따른 전염확산 방지대책을 세우고 전국의 거점병원과 약국에 항바이러스제를 충분히 비치하며 연휴 기간 중에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정해 의료 서비스 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의 경우 불공정 행위와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차질 없는 대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들이 물가를 걱정하지 않고 희망을 살리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제수용품을 충분히 공급해 서민생활에 주름살이 지지 않게 해달라"며 "소액의 선물을 보낼 때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영세상인의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장터 명	장터 수	기 간	내 용	운영기관
과천경마공원 바로마켓	1	9월 23~24일 9월 29일~10월 1일(5일간)	–전국 최대 추석 직거래장터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최대 8대 비치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추석맞이 대도시 직거래장터	280	9월 21일~10월 1일(3~5일)	–지자체와 농수축협 주관으로 관공서 등에 부스 설치, 최대 40% 할인 판매	지자체, 농협 지역본부
농협 계통매장 등 특판행사	2,098	9월 18일~10월 2일(6~15일)	–농협 하나로마트, 수협 바다마트, 임협 산림마트 등서 최대 30% 할인 판매	지역 농협, 수협, 임협
인터넷 직거래장터	–	9월 11일~10월 4일	–NH쇼핑, G마켓 등 인터넷 이용 할인 판매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세계경제포럼 “6계단 밀려 19위”… 세계은행 “4계단 올라 19위”…

오르락내리락 국가경쟁력 어떤 게

최근 국가경쟁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잇따라 발표됐다. 9월 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19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여섯 계단이나 밀려난 결과여서 정부 관계자들은 당혹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기치를 내걸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힘써온 터라 올해는 순위가 대폭 오를 것이라고 은근히 기대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뒤 표정이 확 바뀌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9~2010년 기업환경평가에서는 거꾸로 네 계단이나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20위 안쪽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5월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에서는 57개국 가운데 27위로 평가됐다.

이처럼 평가기관마다 들쑥날쑥한 데 대해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밀한 평가라면 순위가 약간 차이 나더라도 최소한 순위 변동 방향은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순위를 끌어내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훌쩍 올리니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세계은행 평가 19위… 조사 이후 가장 좋은 평가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기관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는 곳은 WEF와 IMD, 세계은행 정도다. 다보스포럼 개최 단체로 유명한 스위스의 WEF가 1979년 가장 먼저 평가를 시작했다. 경영대학원 성격의 IMD는 한동안 WEF와 평가작업을 공동으로 해오다 1989년부터 독자적인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기업경영에 관련된 부문에만 국한해 2003년부터 평가를 하고 있다.

세 곳 모두 평가의 초점을 특정 국가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느냐에 맞춘다. 기업이 잘돼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고,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취지에서다. 평가 문항도 고용과 세금, 규제, 인프라, 교육 여건 등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얼마나 편리한 환경인가를 따져 묻는다.

하지만 평가 방식은 상당히 다르다. 우선 평가 대상 국가를 보면 세계은행은 1백80여 개국, WEF는 1백30여 개국으로 주요한 나라는 거의 대부분 포괄한다. 반면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55개국 정도가 대상이다.

문항 수에도 차이가 크다.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지만 WEF는 1백10여 개, IMD는 3백30개 남짓한 문항을 묻는 데 비해 세계은행은 10개 분야 34개 항목이 전부다. 삼성경제연구소가 WEF와 IMD의 지난해 평가 문항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질문은 55개에 그쳤다. 사실상 서로 다른 항목을 평가하다 보니 기관마다 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도 서로 다르다. 특히 WEF의 경우 대

국가 경쟁력 평가 방식 비교

자료 : 기획재정부, 삼성경제연구소 제공

평가기관	평가 명칭	올해 한국 순위 변화	평가 대상 국가 수	설문 대상	평가 특징
국제경영개발원 (IMD)	국가경쟁력	31 → 27	57	각국 CEO	–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경영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문 평가
세계경제포럼 (WEF)	국가경쟁력	13 → 19	133	각국 CEO	–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환경 성숙도, 기술 혁신 등 12개 부문 평가 – 국가별 발전 단계에 따라 가중치 차별화
세계은행	경영환경평가	23 → 19	183	1만명의 기업변호사가 자료만 검토	– 기업 경영과 관련된 항목을 데이터로만 평가

진짜야?

세계은행이 9월 9일 발표한 '2010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 따르면 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조사 이후 가장 좋은 평가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6단계 밀린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동아DB

여러 기업으로 가득 찬 서울 여의도의 모습.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은행이 평가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9위를 차지했다. 특히 창업, 국제교역 등에서 높은 순위를 받았다.

상 국가를 국민소득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같은 항목에 대해 다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한국은 2007년 인프라와 기술 분야 가중치가 높은 '혁신주도 경제'로 그룹이 바뀌면서 23위에서 11위로 한꺼번에 12단계나 상승하기도 했다.

더 큰 차이는 설문 비중에서 나온다. 전체 평가항목 가운데 WEF는 3분의 2가량, IMD는 절반 정도를 설문조사 결과에 의존한다. 설문 대상은 철저히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 한정된다. 반면 세계은행 평가에서는 설문 없이 34개 문항 모두 객관적으로 발표된 자료만 쓴다.

문제는 설문조사라는 게 본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CEO들이 객관적 입장에서 각 항목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가를 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설문 문항 자체도 주관적인 답변이 나오게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에이즈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당신 회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느냐(WEF)"는 식이다. 기업, 정부, 인프라 등 모든 분야를 두루 꿰고 있지 못한 응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해서 얻은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설문 시점의 정치·사회적 여건이 답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문제도 있다. 기획재정부 이대희 경쟁력전략팀장은 "올해 한국의 WEF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도 설문이 진행된 5월에 쌍용자동차 파업과 비정규직법 갈등이 불거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평가항목에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많은 요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의료나 사회안전망, 소득분배 같은 사회복지 분야는 거의 평가되지 않는다.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편이다. 거시경제 요인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이 부문이 빠진 경쟁력 평가는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저축률이 극히 낮고 장·단기 금리차가 너무 커 거시경제 안정성이 취약했지만 기업우대 정책을 편 덕분에 2007년 IMD 평가에서 7위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국가부도 사태가 나자 올해는 아예 대상에서조차 빠졌다.

기술·교육 등 최고 수준… 노동 분야 등은 취약해

이 때문에 각 기관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수를 실제 국가경쟁력 자체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서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는 경쟁력 순위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반면 한국과 개발도상국들은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 존 반 리넨 교수는 이를 두고 "마치 스포츠 경기 순위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만한 내용도 많다. 특히 각 기관의 평가에서 공통적인 부문을 추려내고 분석하면 유익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삼성경제연구소가 각 평가기관의 공통된 평가항목을 뽑아 순위를 다시 매긴 결과 한국은 19~20위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공동 평가 항목에서 한국은 기술, 인프라, 교육 분야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과 정부 효율성 및 규제 분야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국가경쟁력 순위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득갑 수석연구원은 "단기 순위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평가에 나타난 우리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G

글 · 최현철(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기초자치단체 통합 절차 연내 마무리

"통합 땐 10년간 최대 4000억 지원"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절차가 연내에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 말까지 통합 건의를 받은 후 주민 의사 확인 및 실무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이 선출되면 같은 해 7월 1일 통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경기 남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정구역 통합 절차를 밟는다. 남양주 시장과 시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은 9월 7일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남양주와 구리지역에 대한 자율통합 의사를 전달하고 행정안전부의 사전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남양주와 구리지역의 통합에 관한 공식 건의서가 접수되면 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 주민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통합 절차가 진행된다. 이뿐 아니라 통합이 완료되면 막대한 인센티브도 보장받는다. 이는 정부가 8월 26일 발표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통해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시군구에 △10년간 1천억~4천억원의 인센티브 제공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립형사립고 지정 시 우선 지원 △농어민을 위한 기존 면허세와 주민세 세율 유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자치제도기획관은 "전국이 2백30개 시군구로 잘게 쪼개져 있어 주민 생활이 불편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며 "주민 의사를 반영해 올해 안으로 통합을 결정하고, 내년 7월 출범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개발, 주민생활 여건 개선, 기존 혜택 보호 등 지역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재정 지원 측면에서 통합으로 줄어들게 되는 교부세액(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교부금)을 통합 전과 같은 수준으로 5년간 보전해주고, 별도의 인센티브로 통합자치단체의 1년분 보통교부세액 중 60퍼센트를 통합자치단체에 10년에 걸쳐 나눠 지급할 방침이다. 또 통합하는 시군구마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준다. 이를테면 충북 청주와 청원이 합칠 경우 10년간 모두 2천5백2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을 진행할 때 국고보조율은 10퍼센트 포인트 올리고 자치단체가 사업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낮추기로 했다. 자치단체 통합으로 농어촌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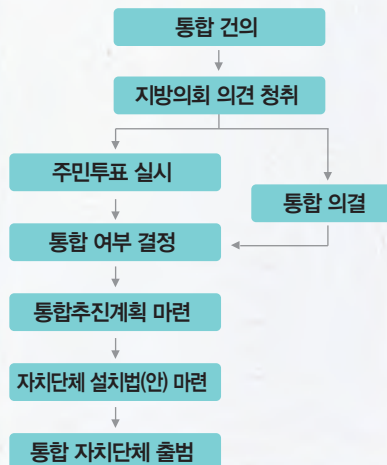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외에도 행정비용 절감, 주민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인구 증가와 면적 확대, 공장·주택용지 확충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에 따라 학군을 재조정하거나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를 지정할 때 농어촌지역을 우선 지정키로 한 것이다. 도서관, 예술회관 같은 문화시설 확충 예산도 농어촌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읍면이 동으로 바뀌어도 음식점, 학원, 숙박업 등의 면허세와 주민세 세율 등 농어촌 주민들의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합 이후 업무 증가와 인사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공무원 정원도 앞으로 10년 간 현행대로 인정한다. 또 인구가 5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구 설치가 가능하며, 인구 1백만명을 넘는 곳에는 부시장이 한 명 더 배치된다. 이 밖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 통신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할 때도 통합 시군구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지역특화 및 전략사업 예산을 지원할 때도 우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10개 지역에서 모두 통합이 성사된다면 10년간 3조9천억원의 사회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주민 1인당 50만원 꼴이다.

현재 통합 논의가 제기된 곳은 충북 청주·청원,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기 남양주·구리, 전북 전주·완주, 경기

남양주시청

현재 경기 남양주시와 구리시 등 10여개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가운데를 흐르는 왕숙천을 경계로 왼쪽이 구리시, 오른쪽이 남양주시다.

안양·의왕·군포,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 경기 성남·광주·하남, 부산 중·동구 등이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중앙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인센티브 외에도 행정비용 절감, 주민 서비스 향상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중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2조원으로, 10년간 추가 지원되는 교부세액의 합계다. 또 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 공공시설 공동활용 등으로 절감되는 비용이 4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상하수도 통합 관리, 대량생산을 통한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 장수수당 등 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등에 따른 이익 1조5천억원이 추가로 발생한다. 더욱이 향후 인구 증가와 면적 확대, 이미지 개선, 공장·주택용지 확충에 따른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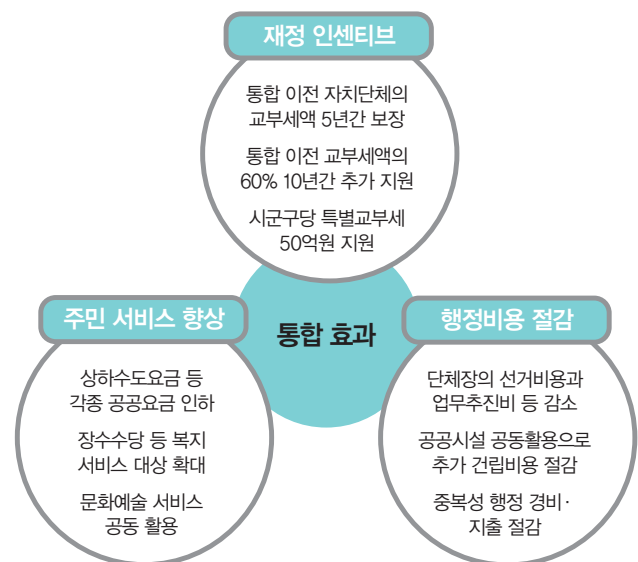
국고보조율 10% 올리고 농어촌지역 각종 혜택 늘려

이 같은 기대효과를 온전히 취하느냐 버리느냐는 주민 의지에 달려 있다. 자율통합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9월 말까지 각 자치단체의 통합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지방의회나 주민투표 의결을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 효과

재정 인센티브
- 통합 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5년간 보장
- 통합 이전 교부세액의 60% 10년간 추가 지원
- 시군구당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

주민 서비스 향상
-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 장수수당 등 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 문화예술 서비스 공동 활용

행정비용 절감
-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등 감소
- 공공시설 공동활용으로 추가 건립비용 절감
- 중복성 행정 경비·지출 절감

주민투표 의결 기준은 과반 찬성이다. A와 B라는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할 경우 양쪽 모두 50퍼센트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합이 추진된다. 만일 지방의회가 의결할 경우에는 양쪽 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통합이 진행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반대할 때는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통합추진 계획과 자치단체 설치 법안은 이후에 마련된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7월 1일에는 통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Tel 02-2100-3645 www.mopas.go.kr

박정희 前 대통령 친필문서 공개한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 동훈

“4대강 유역 개발 박정희 前 대통령도 추진”

정책이 변화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렇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동훈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은 1970년대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지금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4대강 개발과 관련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문서를 공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죽었다’. 대규모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19일 이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에 설치한 대운하준비단을 해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인데, 적잖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를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보려 한다.

목하 지방은 고사 직전이다. 농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곳인데, 농업마저 시들해졌으니 젊은이들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집을 지키는 곳이 늘고 있다. 일할 사람은 없고 산업도 없으니 의욕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고향을 살릴 재간이 없다. 지역을 살리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들도록 ‘종잣돈’이 뿌려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고향 살리기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이 뿌려지는 기회로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치수(治水)사업으로 봐야 한다. 치수는 만인을 위한 것이기에, 사람이 취락을 이뤄 살기 시작한 신석기시대부터 존재해온 공동사업이다. 산업화시대 이후에는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불황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미국도 대공황을 테네시강 유역 개발로 대표되는 뉴딜정책으로 이겨냈다.

새마을운동 이후 첫 서민 살리기 정책 될 것

박정희 정부 말기에 통일원 차관을 지낸 동훈(75) 남북평화통일연구소장은 오해를 사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안타깝다. 논란 많던 대운하는 접고 새마을운동 이후 정말 오랜만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된 것인데, 질시를 받고 있으니 답답한 것이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냈기에

새 마 을

나라의 밝은 앞날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터로 나가 물려 받은 가난과 설움을 다시는 후손에 물리지 말고자 땀흘려 이 땅을 가꾼다.

대대로 버려져 메말랐던 이 강산을 10년의 피어린 노력으로, 그 모습을 바꾸며 그 터전을 반석처럼 다지고 있다.

이제 굳건한 새터전 위에 자조와 자립과 자위의 의지로서 이강토 고장마다 "새마을"을 가꾸고자 농촌의 형제와 자매는 의연히 나선다.

조상의 뼈가 묻혀, 그 넋이 후손을 보살피며 선대가 일구어 놓은 논과 밭에 오곡이 풍성한 고장!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돌보며 후손들을 일깨워 어둠을 밝힌 속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온화와 순박함이 넘치는 마을! 이는 겨레의 삶의 고향이니, 여기에 알뜰한 "새마을"을 가꾸고저 한다.

"새마을" 그것은 우리고장, 나의 사랑하는 고향, 내가 살고 또 후대가 같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고 정든 마을이다.

그 누가 내고향 내마을을 몰 볼 것인가!

에 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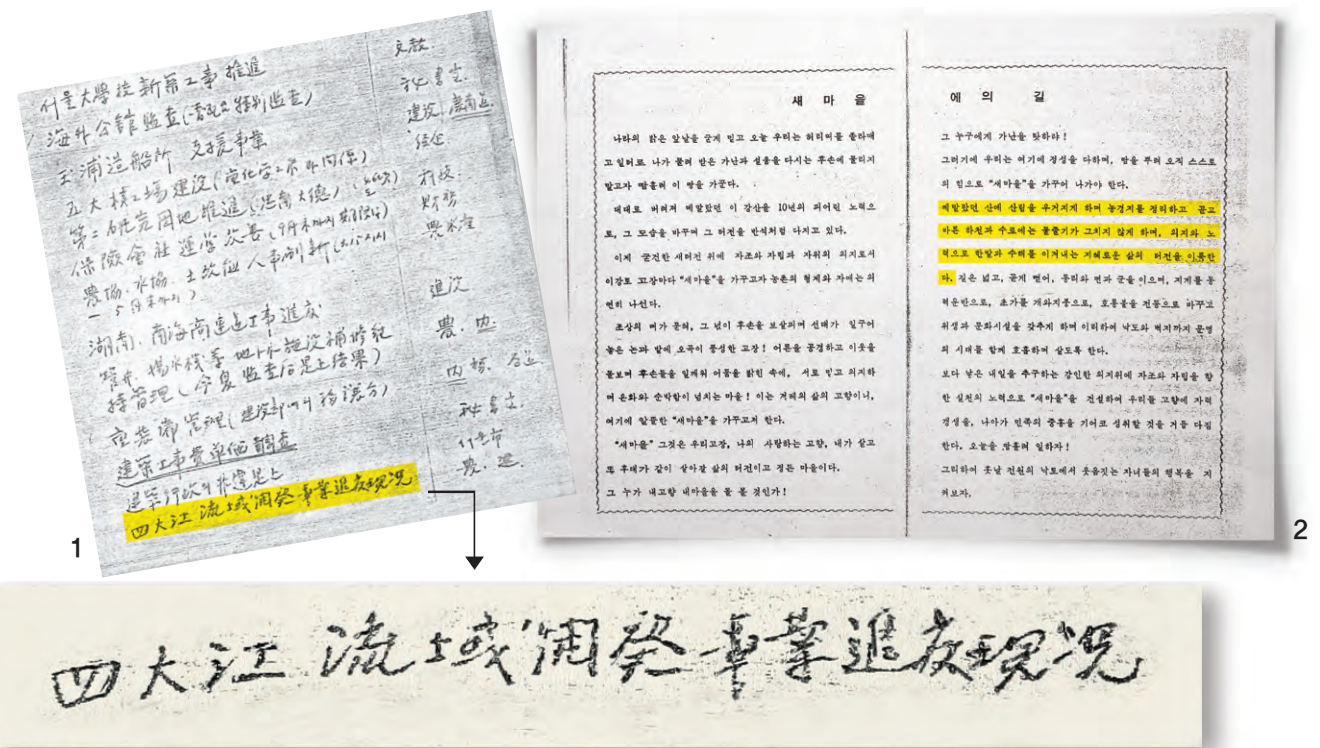
그 누구에게 가난을 탓하랴!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정성을 다하며, 땀을 뿌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새마을"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메말랐던 산에 산림을 우거지게 하며 농경지를 정리하고 곧고 바른 하천과 수로에는 물줄기가 그치지 않게 하며, 의지와 노력으로 한발과 수해를 이겨내는 지혜로운 삶의 터전을 이룩한다. 길은 넓고, 곧게 뻗어, 동리와 면과 군을 이으며, 지게를 동력운반으로, 초가를 개와지붕으로, 호롱불을 전등으로 바꾸고 위생과 문화시설을 갖추게 하며 이리하여 낙도와 벽지까지 문명의 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살도록 한다.

보다 낳은 내일을 추구하는 강인한 의지위에 자조와 자립을 향한 실천의 노력으로 "새마을"을 건설하여 우리들 고향에 자력갱생을, 나아가 민족의 중흥을 기어코 성취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오늘을 땀흘려 일하자!

그리하여 훗날 전원의 낙토에서 웃음짓는 자녀들의 행복을 지켜보자.

1 동훈 소장이 보관하고 있는 1973년 8월 15일의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메모엔 ‘4대강 유역 개발사업’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
2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업적인 새마을운동의 개념을 정리한 글. 이 원고는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비서관이었던 동훈 소장이 쓴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적잖은 자료를 갖고 있다.

동 소장의 자료 중에는 1973년 8월 15일 박 전 대통령이 만년필로 직접 쓴 '중요업무발췌(8·15 이전분 정리)'라는 제목을 단 메모가 있다. 이 메모에는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중요시했던 국정사업과 담당부처가 정리돼 있다. 이 메모의 첫 머리는 '해병대 편제 개편작업'인데 담당부처는 국방부로 표기돼 있다.

이 메모를 작성하기 직전인 1973년 6월 23일 박 전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는 '한국은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할 수 있다' '한국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남과 북은 전쟁에 의한 통일을 지양하고 서로 잘살기 경쟁을 벌이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대운하 잔영 걸림돌… 바뀐 정책 홍보 힘써야

북한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자력으로 주민을 잘 살게 하라고 했으니 지금 처지에서 봐도 올바른 '햇볕정책'이요, 획기적인 평화공존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전략가답게 메모 내용에 '6·23 후속조치'를 적은 후 '외무장관, 특사, 의원 외교단 파견 등'이라는 문구를 적어놓았다. 6·23평화공존 정책을 세계만방에 알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리고 농림부, 내무부, 건설부, 보건사회부가 담당해야 하는 '한·수해(旱水害) 대책'도 메모에서 언급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류국가가 됐기에 웬만한 가뭄이나 홍수에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지난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었던 한국의 농민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었다.

한 줄기 비도 없이 땡볕이 내리쬐면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다 폭우가 쏟아지면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가뭄의 한해와 홍수의 수해를 벗어나는 것이 국민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은 안보와 평화통일, 한·수해 대책을 모두 중요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메모에서 갖가지 경제정책을 나열하다가 농림부와 건설부가 챙겨야 할 사업으로 '4대강 유역 개발사업 진도 현황'을 적어놓았다. 한국은 대부분의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그리고 가을부터 봄까지 긴 과우기(寡雨期)를 보낸다.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쏟아지는데, 이 물을 가둬놓지 못해 과우기 때는 한해를 반복해서 겪어왔다.

유사 이래 계속된 이 피해를 줄이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같은 큰 강에 댐을 만들고 작은 강에는 보(洑)를 지어 집중호우 때는 물을 가둬 수해를 줄이고 갈수기 때는 물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자는 것이 바로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이었다. 그리고 식량증산계획도 메모에 거론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은 당시 그가 생각하던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정교한 국가운영 지침을 담은 문서를 보여준 동 소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통한다"고 강조하며 "박 전 대통령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저항이 전혀 없었다. 되레 반기는 국민들이 많았다. 물을 다스려 국민이 살기 좋게 하는 것이 위민(爲民)정치의 시작인데 지금은 거꾸로 백안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혀를 찼다.

동 소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를 연계하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대운하를 하겠다던 사람들이 대운하는 접고 강을 정비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강을 정비하면 혜택을 보는 이들은 강 주변의 사람들이니 그들 스스로 강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에 사는 처녀들도 도회지 처녀들처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변에서 데이트를 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농촌지역 초등학생도 도시 어린이와 똑같이 뱃놀이를 하고 안전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이 잘사는 복지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가장 반기는 것은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니, 이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동네 느티나무 밑에 사람들이 모여앉아 우리 고장을 위해 강을 살리는 게 좋은지,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은지 토의하게 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홍보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동 소장의 충고다.

"전문가도 아닌 몇몇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조차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치인들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 민주정치입니까? 그러한 세력들이 힘을 갖고 있으면 지방을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입장에서 득이 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뜻만 옳다고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역사 속에 길이 있어요. 현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걸어간 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G

글·이정훈(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보는 방법

한국정책방송

KTV

대한민국
정책정보지
Weekly 공감

대한민국
정책포털

희망

대한민국 소통아이콘

www.korea.kr

ktv.korea.kr

gonggam.korea.kr

기획특집

ID : IT Korea
PW : Green

9세기에 살았던 해상왕 장보고가 드넓은 바다 정복을 꿈꾸었다면 21세기 한반도의 해상왕 후예들은 세계 정보기술(IT) 바다 정복에 도전하고 있다. 해상왕 후예들은 이미 찬란한 승전보를 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속도의 인터넷 최강국, 반도체 · 디스플레이 생산 세계 1위, 세계 IT 업체들이 앞다퉈 신제품의 시장성을 시험하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 국가… 대한민국은 이미 IT 선진국이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해상왕 후예들은 더 크고 넓은 미래의 바다를 갈망한다. 제2의 비상(飛上)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패스워드는 바로 'IT'다.

2013년까지 189조 투자… IT코리아 미래를 연다

정경택 기자

유비쿼터스 거리 조성을 위해 서울 강남대로에 설치된 미디어폴. IT는 한국인의 자부심이자 성장동력이다.

미래기획위원회 등이 발표한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맞았다. 인터넷 최강국의 자부심, IT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으로 다가올 IT 미래 세상에 한걸음 빨리 도달할 것이다.

미국 개발자와 일하게 됐다.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주고 받고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음악 감상에 동영상 관람… 갑자기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고 게임까지 하는 것을 보고 "당신은 미래에서 왔는가" 하며 떡실신.

미국의 경력 5년차, 나름 고급 개발자와 일하게 됐다. 나 혼자서 DB, CS로직, HTML 심지어 포토샵으로 이미지까지 편집하는 것 보고 "당신의 정체는 뭔가. 우리 회사 전체가 다 하는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다" 며 떡실신.

인터넷 유머 '외국인 떡실신' 시리즈 IT 버전의 한 토막이다. 관용구인 '떡이 되다'와 '실신'이 합쳐진 인터넷 신조어 '떡실신'은 가벼운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에서까지 사용하는 용어다. 적당히 부풀려진 이 유머에는 외국인들을 '떡실신'하게 만드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일상이 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 잠시 잊고 있던 IT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다.

정보기술(IT)의 핵심인 인터넷은 산업뿐 아니라 한국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아니, 어쩌면 한국인의 특성이 인터넷에 영향을 끼친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인의 특성과 IT문화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저서 〈디지로그〉를 펴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한국인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빨리빨리 문화'가 오히려 초고속 인터넷 시대 도입을 촉진했다" 면서 한국인의 특성이 IT 시대를 꽃피우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 점에 주목했다.

이제 한국인과 한국을 말할 때 IT는 빼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다. 한국의 경쟁력을 말할 때도 IT는 핵심요소다.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IT의 힘이다."

9월 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주재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한국의 IT산업을 평가했다.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수립… IT특별보좌관 신설도

대통령이 이 같은 화두를 던진 것은 이날 보고회에서 향후 우리나라 IT산업이 나아갈 5대 전략이 제시된 것과 관계가 깊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래기획위원회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선정한 IT융합, 소프트웨어,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IT전략 분야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됐다.

IT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IT정책의 핵심이 담겨 있다. 자동차와 조선 등 '굴뚝산업'으로 평가받는 전통 제조업과 IT산업을 융합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IT정책은 출범 초기부터 'IT융합'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지금의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한 것도 IT융합과 방송통신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위해서다.

세간에는 정보통신부의 해체를 둘러싸고 'IT 홀대론'이 나돌기도 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9월 IT융합 전통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자동차, 조선, 건설, 섬유, 국방, 항공, 의료, 교육을 IT 융합 전통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에는 IT융합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전체 4.5퍼센트 수준에서 2013년에는 10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IT산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보고회에 앞서 대통령IT특별보좌관이 신설된 것도 정부가 IT에 쏟는 관심을 방증한다.

이번에 발표된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모두 1백89조3천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IT융합을 통해 국내 생산이 1조원 이상인 자동차, 조선, 에너지, 항공, 국방, 로봇 등 10대 전략산업을 창출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력 IT 제품의 '세계적 공급기지'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의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R&D를 추진하고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이동통신 특허·표준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소프트웨어산업도 육성 대상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국내 8개 IT 서비스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을 글로벌 1백대 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리더를 양성하고 휴대전화, 개방형 모바일 운영체제(OS)도 민관 공동 개발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와이브로(WIBRO·휴대무선인터넷)와 인터넷TV(IPTV), 3DTV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목표로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이 추진된다. 2010년까지 전국 모든 교실과 육해공군 병영생활관에 IPTV가 연결된다. 또 2012년까지 아날로그 TV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IT 미래전략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2010년 잠재성장률이 0.5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 등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백대 기업으로 키우고, 반도체 등 3대 주력 IT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차세대이동통신(4G) 시장 선도 등이 실현되면 IT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IT산업의 각 부문 간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2010년 잠재성장률이 0.5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 등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전상헌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미 지난해부터 가동을 시작한 IT융합발전 전략으로 조선, 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 결과물이 가시화되고 있고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종에서도 IT 고도화전략 기반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민관이 협의해가며 5대 핵심 IT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우위시장 구조를 확립해나갈 것이다. 특히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지만 가장 취약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 양성, 제도적 미비사항 개선 등으로 적극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박경아 기자

9월 2일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IT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경택 기자

정부는 버스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에 구축해 사회적 비용과 연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그린IT 선도국 되자

정보기술(IT)은 에너지 효율화, 교통·물류 지능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최근 선진국들은 물론 우리 정부가 '그린IT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를 IT강국에서 '그린IT 선도국'으로 거듭나게 할 그린IT의 현주소와 비전을 알아보자.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린IT 제품 및 서비스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 그린IT 시장 규모는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5억 달러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48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그린IT는 환경을 의미하는 녹색(Green)과 IT의 합성어로 'IT 부문의 녹색화(Green of IT)'와 'IT 융합에 의한 녹색화(Green by IT)'를 포괄한다.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뛰어난 IT 활용능력,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다. 특히 디스플레이, 디지털TV, 휴대전화 등 IT 제품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녹색경쟁력까지 확보할 경우 단기에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녹색기술 관련 정책을 통합해 '그린IT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IT강국에서 그린IT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Green of IT'와 'Green by IT' 분야의 9대 핵심과제가 담겨 있다. 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4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IT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7조5천억원의 생산 증대, 5만2천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1천8백만 톤의 탄소

배출량 저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그린IT 제품의 신성장동력화를 추구하는 'Green of IT' 전략은 △PC, TV·디스플레이, 서버 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시장성이 뛰어난 3대 그린IT 제품으로 집중 개발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 빠른 세계 최고 수준의 기가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서버 고효율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과 IT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해 IT 제품 및 서비스의 녹색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탄소 배출량 중 IT가 차지하는 비율은 2.8퍼센트로 전 세계 평균(2퍼센트)보다 높은 수준이며 2012년에는 3.1퍼센트로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유비쿼터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24시간 가동되는 'Always On' 기기가 늘어나 IT 부문 탄소 배출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5년에는 IT 부문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10~15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DC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전력 소비량이 연간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고 있다. e-지속가능 이니셔티브(GeSI)가 지난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IDC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2년 7천6백만 톤에서 2020년 2억5천9백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착공… 글로벌 허브로 육성

이에 정부는 IDC 인프라와 시스템의 고효율화 및 고성능화를 위해 그린 IDC 테스트베드 기반환경을 구축하고 그린 IDC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산학연과 함께 모여 그린 IDC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그린IDC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IT를 활용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Green by IT' 전략을 통해 공공 부문의 원격근무 비중을 올해 2.4퍼센트에서 2013년 20퍼센트, 2020년 30퍼센트로 대폭 늘리고 자전거 등을 통한 '탄소 제로' 출근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에서의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넷북과 e페이퍼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에는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IPTV 등을 활용한 친환경교실을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에는 2011년 IPTV를 기반으로 한 원격의료시스템을 갖춰 2013년까지 병원 방문을 15퍼센트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단순 만성질환 관리는 집에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원까지 오가며 드는 비용과 에너지도 줄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의 녹색화를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지능형 실시간 환경감시체계, 재난 조기대응 체제 등도 2013년까지 구축된다.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ITS다. ITS는 교통수단 및 시설에 첨단 IT와 교통정보를 융합해 교통체계의 운영과 관리를 과학화, 자동화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 첨단 미래형 녹색교통체계다.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교통 SOC인 ITS는 1994년 경부선과 서울~대전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나 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비롯한 ITS를 갖추고 있다. 이 가운데 28개 지자체는 교통정보센터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고속도로 3천4백47킬로미터(100퍼센트), 국도 1천9백9킬로미터(14퍼센트), 일반도로 8백89킬로미터(1.8퍼센트) 등 총 6천3백94킬로미터의 도로 구간에 ITS가 구축됐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태양광 충전 휴대전화, 옥수수 추출물을 외장재로 사용한 에코폰 등 친환경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에 ITS를 구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사고로 인한 비용, 물류비 등이 절감돼 연간 11조8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ITS를 1천 킬로미터 구축할 경우 연간 8백26만 리터의 연료 절감과 1만8천8백2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도 현 정부 들어 새롭게 뜨고 있는 녹색IT 중 하나다. 스마트 그리드는 단방향의 기존 전력망에 IT를 접목해 소비자와 공급자가 양방향으로 발전과 송전, 전력소비 등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이다.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에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접목해 IPTV 등으로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환경 전력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8월 31일 제주 구좌읍에서 열린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착공식은 그 시발점이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시험하고 평가할 실증단지는 제주 북동부에 자리한 구좌읍 일대의 6천여 가구로 구성된다.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는 민간 주도의 해외 실증단지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진행되며 에너지·환경 문

제 대응, 신성장동력 육성, 저탄소 녹색생활 패턴 정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증단지 내에서는 스마트 계량기 사용 일상화, 전기자동차 운행, 풍력·태양광의 광범위한 사용, 전력망의 지능화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실증단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국 기업에도 개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국내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그린IT 제품 및 서비스 도입으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발광다이오드(LED) 노트북, 세계 최초의 태양광 충전 휴대전화,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외장을 만든 에코폰 등 친환경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에코파트너 제도'와 친환경·저전력 제품 생산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에코디자인 제도'도 도입했다.

삼성SDS는 현장 중심 업무시스템인 '오픈 플레이스(Open Place)'를 개발해 원격근무, 원격협업, 화상회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능형 빌딩 시스템(IBS),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건물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에 적용해 건물 유지비 절감도 실현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직류전원, 가상화(Virtualization) 등 19개 그린IT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를 적용한 그린 IDC 구축도 확대했다.

LG전자는 최근 국내외 사업장과 전 제품의 환경 리스크를 IT로 통합 관리하는 '글로벌 그린IT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회사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과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초에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자 통합 리스크 관리체계(ERM)'도 도입했다. ERM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영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리스크가 발생하면 정해진 프로세스를 적용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사 표준 업무프로세스다.

공공 부문 원격근무 비중 늘려 '탄소 제로'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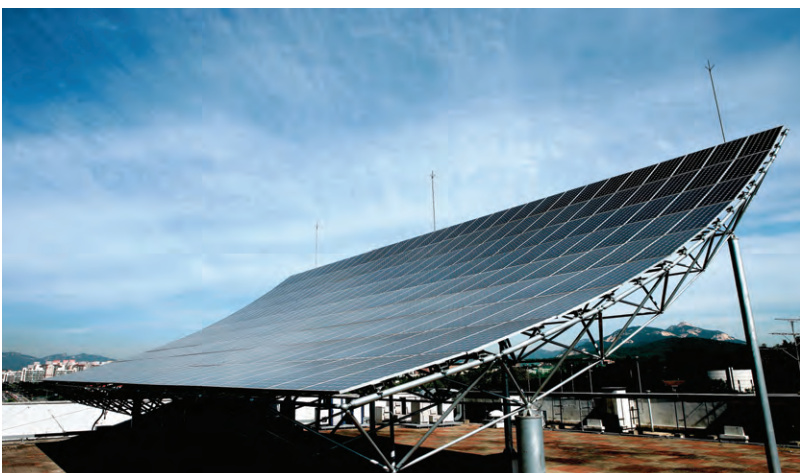
LS산전은 올해 초 소비자 전력 관리장치(SCP)를 개발하는 한편 아파트용 스마트 계량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증도 마쳤다. 스마트 그리드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LS산전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리드를 구현한 '그린 빌리지'와 '그린 팩토리'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린 빌리지와 그린 팩토리는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이 설치되고 스마트 미터시스템을 적용해 가정 내 소비전력에 대한 실시간 수요 관리가 가능한 단지다.

아울러 서울 소재 대학 내에 신축되는 10여 개 건물을 '그린 캠퍼스'로 만들 계획도 갖고 있다. 그린 캠퍼스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 에너지 관리장치 등이 설치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건설된다.

KT는 2013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IT 기반 국가 에너지 효율화를 선도하기 위해 'KT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대형 통합망(BCN),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IPTV), 무선 휴대인터넷인 와이브로 등을 기반으로 한 원격근무 및 화상회의 서비스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 중이다.

목동 IDC에 그린 IDC 기술을 적용해 20퍼센트 이상의 전력을 절감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 KT 서울 신내 사옥과 경기 화성 송신소 등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용하면서 연간 13만 킬로와트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1천1백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공용기지국 이용 확대 및 친환경 무선국 표준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기지국 전력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휴대전화기 주변기기 표준화, 휴대전화기 원격제어 서비스 확대, 모바일 및 e메일 청구서 이용 확대도 추진 중이다. 2007년 SK텔레콤이 자연공조 냉방기 도입으로 6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에 성공한 사례는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글·김지영 기자

정경택 기자

KT 서울 신내 사옥은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다(위). LS산전이 개발한 스마트 계량기.

선진국도 'Save Energy' 그린IT 열풍

그린 정보기술(Green IT)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만 뜨거운 것이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경제성장과 환경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녹색성장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그린IT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찍이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일본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양립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국가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린IT를 미래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올해 3월 하토야마 일본 총무성 장관은 IT뉴딜전략으로 '디지털 일본 창생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유비쿼터스 그린IT 개발 및 전개'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네트워크 구축, 그린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데이터센터 확충, 가정 탄소배출 모니터링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일본 총무성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원격근무 환경을 대상으로 그린IT 기반 정보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제산업성은 데이터센터, 통신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등 3대 분야의 전력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그린IT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전력망 · 통신망 융합한 스마트 그리드 집중 투자

미국도 그린IT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IT 중점 과제로 차세대 브로드밴드 구축을 확대해 전력망 지능화, 원격근무 및 전자의료 확산에 매진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효율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총무부(GSA)는 스마트 워크센터를 구축해 2010년까지 직원의 50퍼센트를 원격 근무로 전환하는 등 공공 부문 원격근무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린IT 정책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다. 미국은 스마트 그리드 기술 육성 및 확대를 위해 매칭 펀드 프로그램 시행, 전기저장 시스템과 분산저장 시스템 개발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 기후변화 대응,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40만 가구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IT제품의 에너지 효율 증대방안으로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IT 제조기업의 저전력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저전력 제품 보급을 확대해 연간 1백20억 달러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정부 차원의 그린IT 비전 및 실천

AP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IT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7월 영국 내각부는 정부기관 IT 장비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녹색정부 정보통신기술(ICT)'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컴퓨터 및 모니터, 사무실, 데이터센터 등 3대 영역의 탄소 감축을 위해 18개 지침으로 구성된 '그린 ICT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

덴마크의 그린IT 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IT는 물론 환경 부문에서도 앞선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갖춘 덴마크의 그린IT 정책은 과학기술혁신부(MSIT)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진흥원(NITA)이 주관한다.

일찍이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일본은 '유비쿼터스 그린IT 개발 및 전개'를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네트워크 구축, 그린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충, 가정 탄소배출 모니터링 확대 등이 그것이다.

덴마크 과학기술혁신부는 2007년 7월 세계 최초로 국가 그린IT 계획을 발표하고 8대 실행전략을 제시했다. 이 실행전략은 친환경적 IT 사용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IT 솔루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는 올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IT, 환경 및 기후변화에 관한 고위급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글로벌 의제 발언권을 강화했다. 이 콘퍼런스 결과는 오는 12월 덴마크에서 열리는 제15차 유엔 기후변화총회에 제공될 예정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4대강에 숨어 있는 첨단 과학

'IT 융합기술' 너를 보여줘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다양한 IT 융합기술이 활용된다. IT 복합센서 플랫폼 기반의 첨단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하천 종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친환경 수자원 관리, 실시간 수해 방지, 생태환경 자원화가 가능해진다.

일러스트 · 이우정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언뜻 정보기술(IT)과는 무관한 토목사업으로 비칠 수 있다.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제거하고 제방을 보강하며 생태습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다양한 IT 융합기술이 활용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자연재해를 막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홍수와 갈수를 예보하거나 수질, 유량, 수위, 오염원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는 첨단 과학기술이 필수적이다. 또한 강을 정비하고 주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일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녹색 에너지원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하천환경·재해 관리를 위한 클린 IT센서 개발, IT를 이용한 하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4대강 디지털투어 시스템 구축, 4대강 환경관리 무인 수중로봇 개발 등 IT를 활용한 하천 개발과 관리 계획이 포함돼 있다.

재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하천, 댐, 지하수, 상하수도 등의 수위, 유량, 수질, 오염원 등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수위, 유량, 침전물 퇴적, 토사 유입 등을 측정하는 수중지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온,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 탁도 등을 측정하는 수질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4대강 클린&그린 IT센서 인프라 구축

현재 4대강 유역 6백 곳에서 시간별 수위를 측정하고 70곳에서 일별 유량을 측정하는 지형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집중호우나 하천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험지역의 수중지형 변화 감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 4대강 52개 측정소에 수온, pH, 용존산소, 탁도 등을 측정하는 수질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지만, 이 또한 물고기 폐사 등 비점오염원(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곳)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사업화 기획을 수립하고 있는 클린&그린 IT센서 플랫폼 기반 4대강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형 관리와 수질환경 관리를 통합한 모니터링뿐 아니라 나아가 하천 종합정보 시스템과 4대강 디지털투어 시스템의 구축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수위, 수량 등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한 통계 위주의 모니터링에서 수위, 유량, 수중지형 변화 등을 통합해 시각화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수중지형 모니터링으로 바뀐다. 또 제한된 일부 위치에서 포괄적 정보를 인력을 사용해서 확보하는 수질 모니터링에서 광범위한 영역에서 정밀하게 위치별 핵심 수질 정보를 지형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USN) 기반의 수질 모니터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IT센서다. 수중환경 정보, 수질 정

보, 수중상태 정보 등을 파악하는 환경 센서가 수질과 환경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3D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수중지형 정보와 토사유입 정보 등을 알 수 있는 수중지형 센서가 재난예측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클린&그린 IT 친환경 복합센서 플랫폼 기반의 첨단 수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친환경 수자원 관리, 실시간 수해 방지, 생태환경 자원화 추진을 위한 IT 센서 기반 친환경 4대강을 구현하는 것이다.

4대강 클린&그린 IT센서 인프라가 구축되면 4대강 통합관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 4대강 통합관제 시스템에서는 IT 기반의 수질 및 지형 관리를 통해 실시간 재해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 산하 대덕연구개발특구 손수창 프로젝트 매니저는 "수중환경 정보의 정확한 측정,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으로 돌발적인 홍수 및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 앞선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면 강물 오염이나 범람사고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천 및 수자원 관리는 수원별, 지역별로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지방하천과 지하수 및 상하수도는 지자체, 댐은 수자원공사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등 여러 개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IT센서 기반의 실시간 재해 예방과 수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범국가적인 통합 수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시간 수질정보 · 재해 모니터링 등 가능해져

4대강 환경 관리를 위해 수중 물고기 로봇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 기획 중인 수중 물고기 로봇은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강물 속에서 유속, 수온, 오염도, 산소농도, 수중 퇴적물 등 수중환경을 측정하고 오염원을 추적하며 수중생태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중 물고기 로봇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중산업, 군사용 및 엔터테인먼트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발 중이다. 수중 물고기 로봇은 4대강 수질 관리 및 친환경 생태계 유지에 활용될 뿐 아니라 수중 로봇 분야 시장을 선점하고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수중환경 관리가 필요한 국가로 기술 및 장비 수출이 가능한 아이템이다.

조영철 기자

한강홍수통제소 중앙상황실에는 한강유역의 각 관측소에서 얻어진 정보가 무선전송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전송된다.

이 밖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IT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한강홍수통제소 하천정보센터 조효섭 시설연구관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발굴해야 한다"면서 "제방에 센서를 설치하는 제방 안전관리 기술, 자동유량측정 시스템, 강바닥의 오니(오염물질이 포함된 진흙) 모니터링 시스템 등은 우리나라가 기술이 앞서 있어 집중 개발해야 할 분야"라고 제안했다.

지식경제부는 4대강 살리기 연계 전문클러스터 사업에 하천환경 · 재해 관리를 위한 클린 IT센서 및 플랫폼과 수중 물고기 로봇 외에도 7가지 후보 과제를 선정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오 · 폐수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산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는 막 분리 기술을, 한국기계연구원은 하천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호기성 수질정화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친화적 정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은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폐기물과 하수 슬러지로부터 에탄올, 전력, 열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감시용 무인 비행선 에어로스탯을 이용한 무인항공, 위성통합 영상정보 시스템 사업화 기획을 하고 있다.

4대강 클린&그린 IT센서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민들은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강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강물 오염이나 범람사고 등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이렇듯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이면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IT 융합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기술융합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시대다. 대표적인 녹색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첨단 IT와 만나면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내무반에도 공부방에도 '디지털 혁명'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학교·군대 등에 IPTV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전국 초중고교와 군대 내무반에 IPTV를 지원하는 등 미래 방송통신 서비스 조기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디지털 세상의 신경망'인 인프라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가 구현된다.

조영철 기자

IPTV 공부방은 모든 계층의 아이들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IT코리아 미래전략'의 한 축을 맡게 된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체상태에 있는 와이브로(WIBRO·무선휴대인터넷), 인터넷 TV(IPTV) 시장이 조기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미디어 관련법 시행으로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시장 전반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앱 스토어(App Store·애플사의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콘텐츠, 디지털 방송 콘텐츠 사업에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이들 방송통신 신규 서비스 부문에 1조5천억원, 차세대 인터넷 및 정보보안 분야 등에 7천억원 등 총 2조2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IPTV와 미래 첨단기술로 분류되는 3DTV 등 3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

우선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전국망 구축작업이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KT, SK텔레콤 두 와이브로 사업자에 대한 투자이행 점검 내용을 토대로 기존 사업자들의 전국망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현재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원에만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제한된 형태의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와이브로, IPTV, 3DTV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육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와이브로 장비업체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업체들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등 12개 거점국가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와이브로 도입 국가의 상당수가 저개발 국가인 점을 고려, 향후 국내 업체들이 이들 국가에 진출할 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같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당초 기대치에 미진한 IPTV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

정경택 기자

정경택 기자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콘텐츠 페어에 선보인 IPTV(오른쪽)와 3D 기술.

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2010년까지 3백50억원을 투입, 전국 1만 개 초중고교의 22만 개 교실과 육해공군 5만9천여 내무반에 IPTV를 연결한다.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학교, 군부대에 IPTV를 지원해 공공 서비스의 '중심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와 군부대에 보급된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IPTV 지원이 가능한 통신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내년부터는 일선 학교에서 IPTV를 통해 스크린 영어, 멀티미디어 학습이 가능해진다.

군부대에서도 최전방이나 격·오지 등 민간인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내무반에 IPTV 영상면회를 허용하고 각종 정훈, 전술 훈련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국방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IPTV 지원사업을 반영했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일부 군부대 내에서 맞춤형 IPTV 서비스가 지원될 전망이다.

모바일 IPTV 상용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IPTV 구현을 위한 기술 지원에 큰 문제가 없고, 특히 국회에서도 모바일 IPTV 제도화에 공감대가 높아 법제작업도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평가다.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3DTV 사업도 본격화된다. 3DTV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내 방송장비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모바일 IPTV는 기존 DMB와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병존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도 유·무선으로 진화하고 통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가 민간과 공공 부문, 유선과 무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하면서 미래 우리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73만명에 그치고 있는 실시간 가입자도 2012년에는 5백만명 수준으로 확대돼 생활밀착형 미디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방송 전환을 앞두고 3DTV 사업도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3DTV 상용화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3DTV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세계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국내 방송장비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국내 방송장비 생산 규모를 지난해의 6억3천만 달러 수준에서 2015년쯤에는 15억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민영 미디어랩 도입으로 콘텐츠 시장 확대

와이브로, IPTV, 3DTV 등 3대 전략사업을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진흥책도 같이 모색된다.

우선 미디어 관련법 개정에 따라 종합편성 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이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위한 논의도 올 연말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유료방송 시장에 매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고, 방송광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될 경우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역에 한정돼 있던 콘텐츠 업체들이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앱 스토어 같은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콘텐츠 비즈니스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선인터넷 접속요금이 현실화되고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이 완비되면 휴대전화 등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평가다. 콘텐츠 전문 투자펀드 조성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부대사업도 같이 모색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까지 기존 속도보다 10배 빠른 초고속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고품질 IPTV, 모바일 IPTV를 비롯해 멀티미디어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G

글 · 최경섭(디지털타임스 정보미디어부 기자)

굴뚝이 IT로 '우뚝'

자동차·조선·의료 등 10개 분야 집중 지원…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 육성

굴뚝산업과 정보기술(IT)이 만나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동차, 조선, 의료 등 10개 분야를 10대 IT융합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동아DB

의료는 대표적인 IT융합산업이다(위). 조선산업은 IT와 결합하면서 신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인 정보기술(IT)은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전통산업에 IT가 접목되면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 굴뚝산업인 철강회사 포스코는 IT를 접목해 수천억원의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을 창출했다. 과거엔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파는 '재고판매방식(BTS)'이던 것을 IT를 통해 '주문생산(BTO)'으로 바꾸면서 재고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IT는 전통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전통산업과 IT의 융합은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의 굴뚝산업을 진화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산업과 IT의 결합은 세계적인 추세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 'IT기반 융합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 IT융합산업 시장 규모가 올해 1천1백2조원에서 10년 뒤인 2018년엔 2천5백19조원으로 커진다.

9월 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IT KOREA 미래전략' 보고서엔 'IT가 다른 산업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동차, 조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에너지, 로봇, 섬유, 의류 등 10대 산업을 IT를 융합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10대 IT융합 전략산업 육성' 방안이 그것이다. 이 분야들은 5년 뒤 IT융합 분야에서만 국내 생산이 각각 1조원에 이르는 등 파급 효과가 큰 산업들이다.

정부는 IT융합 기술에 투자하는 예산 비중을 현재 4.5퍼센트에서 오는 2013년 10퍼센트로 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대 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은 이미 IT가 많이 접목된 분야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차량용 IT부품이 현재 20퍼센트를 넘어섰고, 2015년에는 40퍼센트로 확대될 전망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1980년대 인기 TV 외화 '전격 Z작전'에 나왔던 '키트'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손목시계로 호출하면 알아서 나타나고, 자율주행은 물론 각종 정보를 알려주던 신기한 자동차 말이다.

컴퓨터로 미리 조립… 조선 분야 IT 수준 세계 최고

앞으로 실시간 도로 상태, 날씨, 교통 상황, 전후방 측방의 장애물 유무, 차간 간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졸음, 음주, 피로도 등을 체크해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경고 조치(브레이크 작동, 좌석벨트 조임, 머리받침 조정 등)를 취하는 기능이 개발된다. 궁극적으로는 무인자율주행 단계로의 진화도 가능하다. 그야말로 꿈의 자동차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와 삼성LED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친환경 LED 전조등의 공동 개발에 나섰다. SK텔레콤과 르노삼성은 지난 4월 이동통신과 위치추적 기술(GPS)을 결합해 운전자가 휴대전화로 차량을 원격 제어하고 교통, 생활 등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바일 텔레매틱스'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다.

조선 분야에도 IT 바람이 거세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에서는 이미 3차원 설계시스템과 조립로봇, 자동운항제어기기 등 첨단 기술 활용이 보편화됐다. 국내 대형 조선소들이 실제로 배를 건조하기 전에 컴퓨터로 미리 조립을 해보는 '사이버 탑재 공법'은 다른 나라에서는 흉내 내지 못하는 기술이다.

동아DB

IT와 결합하면서 무인자율주행이 가능한 꿈의 자동차가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은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공동개발 중인 운전자 통합정보시스템.

머지않은 미래에 '전격 Z작전'에 나왔던 '키트'를 현실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이 손목시계로 호출하면 알아서 나타나고, 자율주행은 물론 각종 정보를 알려주던 신기한 자동차 말이다. 궁극적으로는 무인자율주행 단계로의 진화도 가능하다. 그야말로 꿈의 자동차가 탄생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IT를 통해 배를 완성하는 '디지털 조선(造船)'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9월 23일에는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WIBRO)를 활용해 무선으로 모든 공정을 원격 관리하는 '유비쿼터스 조선소'를 개통한다. 이 밖에도 조선업계에서는 전자 설계 기술, 컴퓨터 통합생산 시스템 등과 선박의 첨단 항해에 필요한 선박 무선망 기술, 선박 제어 기술, 선박 안테나 및 레이더 기술 등을 연구 중이다.

의료산업은 전통적으로 IT와 융합한 분야다. 인류의 건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첨단 기술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거 의사는 본인의 감각으로 환자를 직접 관찰했지만 요즘은 혈액검사나 CT, MRI 같은 영상기기를 활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영상기기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 미래에는 IT를 통해 의사의 노하우와 인간의 감각을 모방한 인공 감각 기술이 합쳐질 것이다. 어떤 종류의 암환자는 특이한 냄새를 풍기는데, 후각 기능과 IT 센서 기술을 결합해 암을 냄새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수술로봇 · 나노로봇 등 최첨단 의료시스템 실현될 것

산간 오지, 섬마을의 환자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술로봇,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며 치료하는 나노로봇, 환자가 어디 있든 신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의료서비스, 환자 상태를 실시간 측정해 자동으로 가장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는 지능형 약물투여 장치 등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는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된 무기운용 체계가 전쟁을 주도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선인터넷 와이브로 기술을 적용해 개발에 착수한 전술종합정보통신체계(TICN)를 비롯해 합성 전장환경 모의기술(M&S) 등은 IT가 국방 과학기술과 융합한 대표적 사례다.

삼성테크윈은 유인 · 반자동 시스템 위주인 국방 무기가 무인 · 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흐름에 맞춰 경계 감시 등 군사작전을 수행할 국방로봇 시장에 뛰어들었다. 유명호 삼성테크윈 상무는 "국방로봇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4년 4백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 항공, 섬유, 에너지, 기계, 로봇산업에서도 IT를 결합한 신성장산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대차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합작해 만든 차량IT 혁신센터처럼 10대 전략산업별로 IT를 융합하는 산업융합IT센터를 2012년까지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10월 중에 IT와 제조업 융합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인 '시스템반도체 2015'를 발표할 예정이다. G

글 · 최호열 기자

시장 2조7000억원 · 수출 10억 달러 시대

대한민국 콘텐츠 시장 게임이 먹었다

게임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장을 개척하다시피 한 특산 콘텐츠다.
IPTV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나 가상현실 등 미래의 우리 삶을 바꿔 놓을 미디어들도
게임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미래를 이해하려면 게임을 알아야 한다.

터널에 들어서면 1970년대나 1980년대 그 시절 만화가게와 전자오락실이 펼쳐진다. 지금 30, 40대들의 어린 시절 추억 속에 고스란히 새겨진 장소들이다.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콘텐츠 페어 행사장의 '킬러 콘텐츠 터널' 이야기다. 관람객들이 긴 터널 모양을 지나며 우리나라 대표 콘텐츠들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한 전시기획 공간이다.

이 공간의 첫 주제가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게임과 만화다. 이어서 인기 콘텐츠를 다양한 매체, 다양한 상품으로 만날 수 있는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

OSMU는 사랑받는 콘텐츠의 힘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여러 킬러 콘텐츠 중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가 눈에 들어온다. 게임에서 시작해 출판, 음악, 애니메이션, 각종 상품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며 황금알을 낳고 있는 대표 킬러 콘텐츠다.

라그나로크뿐 아니다. 사실 국내에서 OSMU의 선두주자들은 대부분 게임이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역시 게임에서 출발해 학용품과 만화, 학습만화 등으로 끝없이 증식하고 있다. 직접 참여하며 즐긴다는 속성 때문에 게임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애정도 높은 편이다. 이런 애정은 OSMU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건이다.

콘텐츠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문화이며 동시에 창조적 경제로의 도약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다. 미래 콘텐츠의 핵심엔 다른 무엇보다 게임이 자리 잡고 있다. 게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아니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장을 개척하다시피 한 우리나라 특산 콘텐츠다.

"게임이 뭐 대단한가요? 그까짓 거 애들 장난이죠"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에 뒤떨어진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날 세상에서 게임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10년 만에 2조7천억대 급성장… 콘텐츠산업 45% 차지

지난해 우리나라 게임 수출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자랑인 자동차 8만 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액수다. 우리나라 게임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2조7천5백56억원에 이른다. 1990년대 후반 텍스트와 채팅으로 즐기는 머드(MUD) 게임으로 시작한 온라인 게임 시장이 10년 만에 3조원 가깝게 성장한 것이다.

휴대전화로 즐기는 모바일 게임 시장만도 2천억원 규모다. PC게임이나 아케이드 게임, 닌텐도나 X박스 같은 콘솔 게임은 제외한 수치다. 우리나라 영화시장 규모가 6천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게임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미국의 게임업체 블리자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온라인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로 올해 1분기에 3억 달러 넘게 벌어들였다. 영화 〈타이타닉〉의 흥행 수익이 6억 달러였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콘텐츠 페어 행사장의 킬러 콘텐츠 터널. 콘텐츠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산업은 이미 영화시장을 추월했으며 음악시장을 뒤쫓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게임산업 규모는 이미 영화산업을 뛰어넘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NPD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엔터테인먼트로 '게임'을 선택한 사람은 63퍼센트, '영화 관람'은 53퍼센트였다.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9백23억 달러, 2010년 1천1백78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게임이 "그냥 놀거리 아니냐"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게임이 중독과 폭력성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 시장이 크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는 주장도 있다.

게임은 재미를 위해 하는 놀이가 맞다. 하지만 오늘날 어른들이 '제대로 된 문화'라고 생각하는 영화나 TV, 소설, 만화 등도 대부분은 재미를 위해 소비하는 미디어 콘텐츠일 뿐이다.

몰입·학습 기능 이용한 '기능성 게임'도 등장

이들 미디어 역시 처음 등장했을 때에는 아이들을 겨냥한 유치한 놀음으로 여겨졌다. 주로 폭력과 섹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입지를 굳혔다. 새로운 미디어들은 처음 나올 때에는 하나같이 '폭력을 부추긴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온갖 비난과 오해를 뒤집어썼다. 지금 게임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세월이 지나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이런 생각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적절히 미디어를 활용하는 법을 익혀왔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람들의 정신에 도전과 자극을 주는 예술의 경지에 오른 작품들도 나왔다.

게임도 이런 단계에까지 왔다고 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닐 것이다. 게임은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20년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혁신적이고 훌륭한 게임들이 나오고, 게임을 하며 자라난 세대들이 사회의 중추로 성장하면서 게임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것이다. 얼마 안 있어 게임은 전 국민의 여가문화로 자리를 굳힐 것이다. 젊은 층에선 이미 그런 기운이 완연하다.

게임과 함께 자라난 세대들이 게임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감에 따라 게임의 영역은 게임 이상으로 커질 것이다. 특유의 몰입과 학습 기능을 이용해 게임을 교육훈련이나 사회적 교육의 도구로 삼는 이른바 '기능성 게임'의 등장은 게임과 다른 분야의 융합을 가속화하며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될 것이다. IPTV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이나 가상현실 등 미래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 미디어들도 게임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콘텐츠 페어의 킬러 콘텐츠 튜브로 되돌아가보자. 터널의 끝에 있는 미래 콘텐츠 코너에는 IPTV와 결합된 '뽀로로' 게임이 있다. 영·유아들을 위한 기능성 학습게임이다. 인기 캐릭터와 재미, 학습, 새 플랫폼(IPTV)이 한데 엮여 있는 콘텐츠다. 그리고 그 중심엔 게임이 있다. 우리 미래를 이해하려면 게임을 알아야 한다. G

글 · 한세희(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최근 보안 소프트웨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은 9월 8,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컴퓨터 보안 관련 국제정보보호 콘퍼런스(ISEC 2009).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하라, 현지 파트너 확보하라

소프트웨어 경쟁력 해법 "해외 시장에 있소이다"

최근 잇따라 들려온 보안 소프트웨어의 수출 소식이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에 희망이 되고 있다. 그동안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공격적인 수출 기업들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보안 소프트웨어들이 등장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의 견인차이자 수출 돌파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파트너 확보'와 '틈새시장 공략'이라는 큰 줄기의 전략을 통해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최근 발표된 'IT 5대 전략'에서도 정부의 정보기술(IT) 5대 핵심전략 중 하나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 초반 활황을 타고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본 또는 미국으로의 진출을 감행했다. H사는 미국 현지 직원만 1백50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가 결국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선례를 보아온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수출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 국내 시장에서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커 봐야 몇백억원 수준이다. '파이'가 워낙 작다 보니 선두주자인 기업의 매출이 1백억원에 도달할 정도가 되면 다른 업체가 가세해 가격경쟁이 일어나면서 시장은 더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수출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김형곤 투비소프트 사장은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 기업은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 이익을 바라지 않고 현지 투자를 진행할 정도의 기초체력을 다져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해외 시장 염두에 둬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 매출 1백억원을 넘는 기업들은 손에 꼽힌다. 패키지보다는 커스터마이징(취향에 맞춘 설정 변경)을 선호하는 국내 시장 풍토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 영업이익률은 10퍼센트 남짓이다. 해외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만큼의 여력이 많지 않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길은 있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틈새시

보안 소프트웨어 수출업체인 파수닷컴의 ISEC 2009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문의를 하고 있다. 파수닷컴은 최근 미국, 일본, 멕시코 등지에 공급계약을 체결, 보안 소프트웨어 수출의 선도기업이 되고 있다.

장을 발굴하는 것과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는 파트너 확보다. 특히 파트너 전략은 현지 투자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필수적이다.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시장을 키워갈 수 있다.

최근 디지털저작관리(DRM) 소프트웨어 기업인 파수닷컴이 미국 대형 시스템통합(SI) 기업인 '아이콘'과의 제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파수닷컴의 파트너 전략은 일본 시장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히타치전기에 이어 올해 NTT PC커뮤니케이션즈, 시바타가스 등의 대기업과 DRM 공급 계약을 맺었다.

우선적으로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한 보안 소프트웨어 최고경영자들의 충고다. 또한 현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우수 파트너와 제휴를 맺는 것도 필수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이 회사는 수많은 해외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이름을 알리는 데 주력했으며 그 결과 일본, 태국, 싱가포르, 이탈리아, 영국 등 현지 파트너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길베인이라는 미국 시장조사 기업이 DRM시장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처음으로 DRM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조규곤 파수닷컴 사장은 "해외 DRM시장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선두기업이 없어 가능성이 높다"며 "그동안 해외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파트너들을 확보하는 등 공을 들여온 성과를 조금씩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그동안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국내에서 잘 팔리던 것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한 탓이 크다"며 "하지만 이것은 해외 경쟁자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외에 없는 제품과 틈새를 공략할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RM뿐 아니라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과 컴플라이언스 솔루션 제품 수출도 이어지고 있다. 테르텐은 일본의 소프트뱅크를 통해 야후재팬에 데이터 손실 방지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동경서적과 게임용 이미지기업인 석세스에도 이 솔루션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객이 사용한 양에 비례해서 연간 얼마씩 받는 방식이어서 처음에는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2010년에는 연간 10억원 가까운 라이선스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멕시코 시장에 백신을 공급 중인 하우리는 멕시코에서 하우리 제품을 판매하던 파트너를 하우리 현지법인으로 만들면서 멕시코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국내서 기반 쌓은 IT 융합기술·RFID 등 주목

2007년 초 미국 산호세에 미주법인을 설립한 소만사는 최근 한 은행과 병원에 e메일과 메신저를 통해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솔루션을 공급했다. 법인 설립 이후 미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 실적을 쌓았던 이 회사는 대형 은행과 병원, 편의점 등에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대형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멕시코에서도 이름을 알려 최근에는 멕시코 연방정부에 공급할 수 있는 인증 GSA를 신청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한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사장은 "미국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시장은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분화하면 틈새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주력 고객을 세분화하고 컨설팅, 솔루션, 서비스 등도 세분화해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보안 솔루션에 이어 국내 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출 주력이 될 솔루션들로는 국내에서 성장 기반을 쌓은 융합 소프트웨어,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반이 되는 무선 주파수 식별장치(RFID)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외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수출 역군으로 성장한 보안 소프트웨어 최고경영자들의 충고다. 또한 처음 수익은 다소 적더라도 현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우수 파트너와 제휴를 맺는 것도 필수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작지만 야무진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미래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꿈은 밝아 보인다. G

글 · 문보경(전자신문 정보미디어부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파이어폭스 · 사파리 접속 가능… 정부 49개 대민사이트 12월까지

오픈 웹 브라우저 시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웹 브라우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다. 이렇다 보니 정부 웹사이트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도록 구축돼 다른 웹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다른 웹 브라우저 사용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2011년까지 주요 전자정부 웹사이트를 개선한다.

우리 국민 1백명 중 99명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공짜? 아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2000, 비스타 등과 묶음(번들)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료 웹 브라우저다. 이 때문에 '끼워 팔기'라는 비난과 더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한 웹 브라우저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웹 브라우저 사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률은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다. 2004년 91.3퍼센트, 2005년 87.1퍼센트, 2006년 83퍼센트, 2007년 78.6퍼센트, 2008년 72.7퍼센트로 계속 줄고 있다.

국내외 웹 브라우저 이용률 현황

구 분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사파리	크롬	오페라	기타
전 세계	67.4%	21.7%	8.0%	1.2%	0.7%	1.0%
한국	98.6%	0.8%	0.1%	0.2%	0.03%	0.27%

2009년 2월, www.netapplications.com, internettrend.co.kr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인터넷 관련 서비스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발달하다 보니 피치 못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이 지배적이다. 즉 다른 웹 브라우저들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뱅킹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과 보안기능들이 개발돼야 했고, 이러한 기술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적합한 기술방식(액티브X)으로 개발 보급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자가 많은 편이다.

특정 운영체제 · 웹 브라우저 상관없이 접속 가능해져

우리나라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는 2004년 99.7퍼센트, 2005년 99.3퍼센트, 2006년 99.5퍼센트, 2007년 99.4퍼센트, 2008년 99퍼센트였다. 이에 따라 2004년 8.4퍼센트였던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률 격차는 지난해 26.3퍼센트로 크게 벌어졌다.

재외국민의 다른 웹 브라우저 이용률은 내국인의 경우보다

일러스트 · 남동윤

전자정부 웹표준 개선 내용

개선 후 웹 서비스

정부 웹사이트
개선 대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
파이어폭스
윈도
매킨토시
리눅스

높은 편이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3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67.4퍼센트로 가장 많기는 했지만 파이어폭스(21.7퍼센트), 사파리(8퍼센트), 기타(2.9퍼센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다는 응답도 모두 32.6퍼센트에 달했다.

문제는 대다수 국내 웹사이트의 시스템 구축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지면서 최근 외국에서 새로운 웹 브라우저로 각광받는 파이어폭스(모질라 재단)나 애플사의 사파리 등으로는 검색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 구성된 웹사이트를 다른 웹 브라우저로 접근하려고 하면 접근 자체가 되지 않거나 레이아웃이 어긋나며, 메뉴를 클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 따라서 재외국민 10명 중 3명은 정부 정보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파이어폭스는 유저들에게 소스가 공개되는 대표적인 오픈소프트웨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소수의 IT 독점'에 반기를 든 이들이 주장하는 '다수 공유' 오픈소프트웨어로는 그동안 리눅스가 대표적이었으나 최근 파이어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가 주도하는 오픈웹 참여자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2007년 1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1심, 올 3월 25일 항소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이들은 비록 패소했지만 새 정부 들어 2008년 4월 전자정부 웹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이 확정 고시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웹표준(W3C) 중 5종의 규격이 적용돼야 한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맞춰진 국내 웹사이트들은 다른 웹 브라우저로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문제 외에도 새로운 인터넷 익스플로러 출시 때마다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수출에도 걸림돌이다. 동남아나 중동, 남미 등 우리의 전자정부 수출 대상 국가들의 경우 다수 웹 브라우저에서 호환이 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선호해 수출 활성화 측면에서도 웹표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이 특정 웹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5월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새로 구축되는 모든 전자정부 대민 웹사이트는 웹표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기존 전자정부 대민 사이트 중 1백50여 개 주요 사이트는 2011년까지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된다. 또 2011년까지 모두 1천5백명의 웹표준 전문인력을 양성해 웹표준 강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앞으로 정부 대민 웹사이트들은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최소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준수 대상 웹 브라우저는 대상 웹사이트 서비스의 주요 고객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발주기관이 선정한다.

홈택스 등 49개 대민 사이트 올 연말까지 개선

또 정부의 대민 웹사이트 구축 시 공인인증, 보안 등에 ISO가 정한 웹표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액티브X 등 비표준 기술을 사용할 때는 3종 이상의 웹 브라우저에서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설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나라장터' '학교알리미' 등 일반 국민에게 파급 효과가 큰 49개 대민 사이트에 대해 모두 1백1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올 연말까지 웹표준 준수와 장애인 접근성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신민필 사무관은 "올 연말까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일부 대민 웹사이트의 경우 일부 개인 방화벽과 문서출력 관련 대체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연말정산이 몰리는 연말 전까지는 대체기술을 완성해 개선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디지털 하우스 체험 경기 파주시 '유비파크'

냉장고 속 재료로 메뉴 추천… 내 맘대로 바꾸는 디지털 벽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보아왔던 유비쿼터스 시대가 현실이 될 전망이다. 발달된 IT 기술력과 확고해진 네트워크망으로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구현되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미리 체험했다.

유비파크 체험관 안에 있는 'U-하우스'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실용화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만날 수 있다.

"일어나세요! 오늘 낮 온도는 섭씨 27도, 습도는 33퍼센트, 화창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알람시간에 맞춰 창문 커튼이 자동으로 젖혀진다. 쏟아지는 아침 햇살과 방안에 울려퍼지는 경쾌한 음악소리에 저절로 눈이 떠진다. 잠이 깨길 기다렸다는 듯 침대 옆 모니터가 켜지며 영어 강의가 시작된다. 졸린 눈을 비비며 5분간 주요 문장을 공부하고 나니 출근까지 30여 분이 남았다.

아침을 먹기 위해 조리대로 가니 바쁜 출근시간에 먹기 좋은 계란 토스트 메뉴를 추천하며 칼로리까지 일러준다. 냉장고는 보관 중인 음식 재료의 목록을 보여주며 이를 활용한 메뉴도 추천해준다. 버터를 바른 빵과 깨뜨린 계란을 오븐에 넣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음식이 만들어지는 동안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욕실 모니터를 통해 오늘 스케줄과 몸 상태를 점검한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말리자 거울에 달린 모니터에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패션스타일을 알려준다.

전자태그 이용 U-하우스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식사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 전광판에는 타야 할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좌석은 몇 개 남았는지 알려준다. 시계를 보니 약 3분 정도 남았다. 정류장 옆 모니터를 통해 퇴근 후에 볼 영화를 예매한다. 또한 U-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해 집안 화면을 연결한 뒤 바쁘게 나오느라 미처 끄지 못했던 오븐 스위치를 끈다.

경기 파주시 교하에 위치한 유비파크에서 가상 체험한 유비쿼터스 생활의 단면이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라틴어로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시대란 인터넷이나 컴퓨터 등을 의식하지 않고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구현된 것을 말한다.

이런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이 접목된 도시를 U시티(U-City)라고 부른다. 도시 전체에 멀티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돕는 것이다. 2007년에 세워진 유비파크는 미래 U시티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체험관이다.

유비파크 체험관의 핵심은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구성된 'U-하우스'다. 개인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 카드를 이용해 실제 U-하우스의 집주인처럼 체험할 수 있다. 주방에선 먹고 싶은 음식만 선택하면 조리법과 재료는 물론 칼로리 정보까지 알려주고 아이 방에 있는 탁자에 동화책을 올리면 엄마나 아빠 음성으로 책을 읽어준다.

거실이나 방에 걸린 디지털 벽지는 그날 기분에 따라 바꾸거나 직접 디자인해 꾸밀 수 있다. 거실에는 집안의 다양한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휴머노이드형 플러워봇 로히니가 있어 집 안의 모든 일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로히니는 음성인식 엔진과 음성합성엔진이 함께 탑재돼 있어 전자태그를 통해 식별된 상대와 맞춤대화도 구사할 수 있다.

U시티 체험관 인천세계도시축전서도 만날 수 있어

미래도시의 거리를 재현한 'G&G 스트리트'도 볼 만하다. 날씨와 지역정보 안내를 비롯해 택시 호출까지 할 수 있는 첨단 기능을 갖춘 가로등 단말기와 밖에서 집 안 환경을 설정하는 U-모바일 모니터 단말기 등 다양한 키오스크(Kiosk)가 설치돼 있다. 키오스크는 멀티미디어스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버스 도착시간, 노선 안내, 현재 버스 이동경로 등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미래형 버스 정류장도 눈길을 끈다.

유비파크와 비슷한 U시티 체험관은 10월 31일까지 열리는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도 만날 수 있다. 미래도시 체험관 '투머로우 시티'는 오는 2020년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생기는 미래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이 도시생활에 접목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주목된다. 경기 파주시 교하지구를 포함해 현재 39개 지자체에서 52개 지구를 U시티로 개발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앞으로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로 탄생될 가까운 미래의 유비쿼터스 시대가 기대된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유비파크 Tel 031-946-2125 ubi-park.co.kr

유비쿼터스형 침대에는 체온과 맥박을 재는 기능이 있어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거리에서 만나는 유비쿼터스 'U스트리트' 스크린 모니터로 음식점 찾고 교통정보 살피고

동아DB

분당 율동공원의 감성벤치에 앉으면 저절로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런 유비쿼터스 공원은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안겨준다.

서울 중심가가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에 힘입어 디지털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일명 'U스트리트'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난 3월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교보생명 4거리까지 미디어폴(Media-Pole)이 설치됐다. 최첨단 영상패널과 키오스크 기능이 더해진 막대형 설치물로 영상물 상영이 가능하고 공공정보, 디지털 뉴스, 지역상가 및 교통정보 등도 스크린 모니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을지로2가 역시 오는 12월 U스트리트로 시범 운영된다. 을지로2가에 인접한 삼각공원을 디지털미디어플라자로 만들고, 미디어폴과 비슷한 미디어월(Media-Wall)을 세워 거리 미술관으로 꾸미거나 인사동, 명동 등의 관광정보와 음식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거리뿐만 아니라 유비쿼터스 공원도 있다. 지난해 11월 완공된 경기 성남시 율동공원은 노트북 컴퓨터 등 휴대용 무선기기만 있으면 공원 내 주요 6개 구역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사람이 앉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감성 벤치'도 있다. 최신가요부터 팝송, 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공원 역시 지난 2월부터 유비쿼터스 공원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u-인터넷 파크존' 'u-테마파크 존'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구역 중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u-어린이안전 존'이 눈에 띈다. 공원을 찾은 어린이에게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를 걸면 위치, 이동경로, 위험지역 진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구조대와 경찰의 긴급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도국에 그린 IT 기부 'IT 한류' 일으킨다

개도국에 데이터센터 등 무상 건립… 우호 다지고 진출 기회 얻어

해외 IT 나눔 활동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개발도상국엔 정보화의 열매를, 우리나라엔 정보기술(IT)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라는 열매를 제공한다. 또한 해당 국가와 깊은 우호를 맺는 계기도 마련해준다. IT는 나눔의 화수분인 셈이다.

국제협력단은 아프가니스탄에 IT센터를 만들어 현지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1 2009년 7월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대지에 한국 IT 청년들이 나타났다.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세바만(CEBAMAN)팀'이 7월 3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카자흐스탄의 대표적 시민단체인 엘도스와 함께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법을 가르친 것이다. 정보기술(IT) 강국 대한민국을 알리고 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계를 보는 지평도 넓힌 그들은 민간 외교사절단이었다.

#2 2005년 4월 불가리아 제2의 도시인 바르나에서는 한국형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이 한창이었다. 불가리아에서 2003년 국가정보화담당관 8명을 한국으로 보내 '국가정보화 CIO 과정'을 이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 불가리아가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적극 벤치마킹한 것이 바로 서울시의 민원처리공개 시스템(OPEN System)이었다.

IT를 21세기 첨단 기술,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만 보지 말라. IT는 다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퍼도 퍼도 마르지 않는 '나눔의 화수분'이요, 국경을 초월하는 외교 전사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최빈국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특히 IT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국가로 외교 무대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8월 28일 에콰도르 과야스주(州) 과야킬 시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로 건립된 IT교육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과야킬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IT교육센터는 에콰도르의 IT교육 증진뿐만 아니라 한·에콰도르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교두보로서

우리나라가 지원한 네팔 정부통합데이터센터가 9월 2일 개원했다(왼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CIS 국가의 경찰들을 초청해 IT가 접목된 우리의 과학수사 노하우를 가르치고 있다.

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몽골과 네팔 등에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로 건립된 정부통합데이터센터가 있다. 한 국가의 전자정부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우리나라의 원조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특히 2007년부터 3년간 3천5백만 달러가 투입된 네팔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의 경우, 기반 시설뿐 아니라 센터에 필요한 인력 양성까지 전 과정을 우리 정부가 지원했다.

엘살바도르에는 우리나라 외교 통합 정보시스템이 이식될 예정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엘살바도르가 외교 및 외국 원조에 관한 자료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년간 1백만 달러를 투입해 시스템 구축과 기자재 제공, 전문가 파견, 국내 초청 연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무상원조 사업으로 선정돼 베트남에 도입될 예정이다.

IT는 의료 분야와 함께 대표적인 전문 봉사활동 영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보다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전문 봉사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IT강국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IT 나눔 활동에 정부기관, 대기업, 대학교의 지원이 활발하다.

IT인재개발교육원은 첨단 전파 방송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하는 IT 한류의 진원지 중 하나다. 각국 정보통신 분야 주요 공무원들이 3세대 통신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배운다. 수강 과정이 알차기로 소문나 호응이 높다.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화 후발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대표적인 IT 나눔 활동이다. 2001년부터 전 세계 66개의 개발도상국에 2천1백45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했다. 올해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브라질 등 18개국에 총 4백여 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년봉사단을 맞이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피터마리츠버그 시장은 "남아공의 정보화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해외 청년 IT 봉사활동에는 대학생들의 지원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8년 공대 출신의 외무고시 차석 합격한 신건호 씨는 한국국제협력단이 파견한 국제협력봉사요원 출신이다. 군 생활을 대신할 수 있는 국제협력봉사요원에 지원해 페루에서 2년을 보낸 뒤 외교관의 꿈을 키웠다.

파일 압축 프로그램 '알집'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는 최근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에 유료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영문판 1천5백 카피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동참한 것이다. 이번에 제공된 영문판 패키지는 판매가 기준으로 1억원 상당이다.

해외 전문가 초청 연수로 글로벌 지한파 네트워크 확산

최근엔 해외 IT 전문가 초청 연수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1998년부터 IT 초청 연수를 통한 글로벌 지한파(知韓派) 네트워크 확산에 힘을 기울여왔다. 각국 전자정부·정보화 담당 관료, 국영기업체 임원 등을 초청해 공공기관의 교육정보, 교통정보 등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구축 사례 등을 전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연수자들은 '디지털기회포럼'에 가입해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이 운영하는 IT인재개발교육원은 첨단 전파 방송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하는 IT 한류의 진원지 중 하나다.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얀마, 네팔, 몽골, 이란 등 각국 정보통신 분야 주요 공무원들이 3세대 통신기술 등 최신 트렌드를 배운다. 2003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회의 위탁 교육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전파진흥원은 전 과정을 무료로 가르친다. 수강 과정이 알차기로 소문나 호응이 높다.

해외 IT 나눔 활동은 다양한 씨앗을 뿌린다. 먼저 개발도상국에 정보화 씨앗을 뿌린다. 또 우리나라 IT산업의 진출 기회라는 씨앗도 심는다. 보통 개발도상국에 IT교육센터를 건립하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제품이나 사무용 기자재가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우호 증진에 힘쓰는 리더라는 씨앗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초청 연수를 받는 해외 IT 인력들은 대부분 해당 국가에서 주요 공무원이거나 IT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들이다. 이러한 씨앗 덕분에 IT는 나눔의 화수분이 된다. G

글 · 류현정(IT 칼럼니스트)

정경택 기자

IT강국 한국을 다룬 해외의 유력 미디어들(왼쪽). '유비쿼터스 서울' 특집이 실린 〈타임〉의 온라인 판.

〈타임〉 〈포브스〉 등 IT한국 격찬

미국과 유럽의 미래? "한국을 보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 '서울 :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망이 발달한 메가시티(World's Most Wired Megacity)의 더 높은 도약'이라는 서울발 특집 기사를 다뤘다. IT에 관한 한 '한국의 현재는 미국과 유럽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최근 〈포브스〉 〈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력지들도 IT강국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이혜영·김순교 씨 부부는 서울의 평범한 시민이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은 매사에 최첨단 기술과 접목돼 있다."

2009년 8월 24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들 부부의 출근길을 따라간다. 강남에 있는 회사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른 이 씨는 버스 요금을 무선 주파수 식별장치(RFID) 카드로 치른다. 이 카드는 꽤나 스마트하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거리를 인식해 요금을 자동 정산할 뿐더러, 택시 요금도 같은 카드로 계산할 수 있다. 김 씨의 자동차에는 승용차요일제 준수를 알리는 전자 태그가 부착돼 있어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RFID 리더를 통해 해당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 감지된다. 이 제도 실시 결과 서울에서는 하루에 약 1만 대의 차량 통행이 줄었고, 덕분에 교통 정체와 배기가스 오염이 줄었다고 서울시 측은 〈타임〉에 밝혔다.

〈타임〉은 이혜영·김순교 씨 부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체험하는 유비쿼터스 생활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서울의 구석구석을 누볐다. 사진 속 버스정류장에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와 긴급 교통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LED전광판이 보인다.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에 설치된 '미디어폴' 앞에 모여선 젊은이들은 커다란 터치스크린으로 주변 지도와 주요 기사를 검색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는 인터넷과 비디오 접속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서울' 또는 'U-city'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의 한 장면도 등장한다. 무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 청계천에서 노트북과 터치스크린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타임〉의 지면에 등장한 것이다. 도시 곳곳을 접속 1백 퍼센트의 공간으로 만드는 '유비쿼터스 서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사례다.

이에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08년 11월 7일자에서 성공적인 유비쿼터스의 예로 뉴욕대학 근처의 거리에서 삼성의 인터넷 카페인 '퓨전 랩'을 스케치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인 유비쿼터스는 최근 해외 유력 미디어에서 IT강국으로서 한국을 다룰 때의 키워드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2009년 4월 3일자 '한국, 무선의 미래'라는 특집에서 한국의 유비쿼터스 문화를 서두로 꺼냈다.

"인터넷 접속률 100% 실현 유비쿼터스 서울"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빼고 한국의 기술을 논하기는 어렵다. 유비쿼터스 라이프,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커뮤니티 등 한국의 기술 개발에는 유비쿼터스가 전제된다. 실제로 한국의 모든 기술 –브로드밴드에서 디지털 TV까지–에는 '항상 접속 중이고, 항상 함께한다(always on, always with you)'는 디자인 콘셉트가 담겨 있다."

〈포브스〉는 모든 기술에 적용되는 이러한 비전이 한국을 다른 국가와 확실히 차별화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한국의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잘 관찰하면 미국과 유럽 무선인터넷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고도 충고한다. 속도가 빠른 유·무선 브로드밴드, 지하철에서도 작동하는 모바일폰 안의 텔레비전, 실시간 비디오 전화, 버스정류장과 스타벅스 커피숍 탁자에서

조영철 기자

'U-Cit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청계천 6킬로미터 전 구간에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도 작동하는 풀터치 스크린 등이 그와 같은 첨단 장비들이다.

그러면서 〈포브스〉는 디지털 디바이드(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기관이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전제조건, 즉 혁신적인 기업들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을 빌려 "통신회사들의 민영화와 동시에 정부는 이들 기업이 좀 더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고 한국 정부의 노하우를 귀띔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우리 정부 노력 높이 사

한편 해외 미디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로 2000년대 초부터 자주 기사화되어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켰다. 영향력 있는 웹 전문지 〈와이어드〉는 2002년 10월 8일자에서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접속이 잘되는 도시"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이에 대해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었지만, 올해 초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6위라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적 통신사인 〈AFP통신〉의 최근 보도는 그 논란을 일축시켰다. 〈AFP통신〉은 2009년 6월 19일자에서 미국의 권위 있는 시장조사 전문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의 발표를 인용, 한국 초고속 인터넷의 가구 보급률이 95퍼센트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009년 3월 10일자 '브로드밴드 격차 : 왜 그들은 더 빠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이유로 도시의 아파트에 밀집된 인구 분포와 광범위한 정부 지원을 꼽으면서,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이 본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앨빈 토플러는 2007년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부의 미래' 특별 세미나에서 "혁신의 시대, 부의 미래 시대에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이라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IT강국을 일군 핵심 펀더멘털이라고 진단했다. 이 진단은 아직도 유효하다. 〈타임〉은 2009년 8월 24일자 서울발 유비쿼터스 특집 기사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낙관했다. "한국은 유비쿼터스 시험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얼리어답터로서 누릴 수 있는 잠재적 보상을 이미 받고 있다"고. 전 세계가 유비쿼터스 시대로 향해가는 시험대로서 해외 언론이 IT강국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다. G

글 · 최은숙 기자

월화수목금금금… 30대 후반 정년…

IT 개발자 어디로 가야 하나

동아DB

'IT코리아 5대 미래전략'에는 100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8개를 키우는 등 침체된 소프트웨어 집중 육성책이 포함돼 있다. IT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재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8년차가 들려주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에 대한 제언을 들어본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IT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겠다"는 반가운 발언과 함께 정부의 'IT 코리아 5대 미래전략'이 발표됐다. 2013년까지 총 사업비 14조1천억원을 투자하고 그중 가장 많은(28퍼센트) 4조4천억원을 소프트웨어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성과 현실성의 부재 때문인지 소프트웨어 업계의 반응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발표 내용 중에는 글로벌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장학생을 선발해 차세대 소프트웨어 리더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IT 기술자로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공계 기피현상'. 낯설지 않은 말이다. 현재 한국에서 이공계의 주가는 갈수록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컴퓨터공학과 분야는 더욱 암울한 실정이다. 많은 학생들이 전과(轉科)를 준비하거나 복수전공을 통해 다른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의 비전이 밝지 않다는 사실을 선배나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앞에는 항상 'IT강국'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그 말이 맞는지는 검증해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침체가 결정적 이유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모든 IT 분야의 혼이 되는 기술임에도 계속 쇠퇴하고 있을 뿐더러, 3D로 치부될 정도로 개발자들이 점

점 기피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공 없이는 IT강국으로 올라서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중요한 사업은 하드웨어인 실리콘이 아닌 소프트웨어 분야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명 '논 제로 섬(Non-Zero-Sum)' 산업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보통 한국 개발자들의 정년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백발의 개발자들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한국 IT 기술자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처우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사업 중 90퍼센트 이상은 시스템 통합(SI · System Integration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SI 분야에서 초·중급 개발자들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시간과 청춘을 바치는 것이 전부다. 즉, 주말이나 밤 시간을 투자하는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 부문별 편차가 있지만 초·중급 프로그래머는 낮은 대우를 받는 편이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속칭되는 주 6, 7일 근무가 다반사지만 초·중급 개발자의 연봉은 대부분 대기업 생산직 근로자 연봉에도 훨씬 못 미친다. 또한 별도의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가 40대까지 버틸 수 있다거나 후배에게 같은 일을 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소프트웨어 육성 위한 첫걸음은 '인재 육성'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안으로 IT기술자들을 양성해왔으며 정부의 이번 정책에서도 인재 양성 지원책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물론 그 덕에 당장의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양성된 개발자는 IT문화의 쓴 고배를 마신 후에 현실을 받아들이며 하나둘씩 업계를 이탈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탈과 양성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쉬운 상황에서 인재 양성 지원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사견이다. 지금까지 시행한 정부의 인재 양성 지원책은 기업이 고급인력을 찾기보다는 저임금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인력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중급 인력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초급 인력 둘에게 맡기면 된다는 계산인 것이다.

이는 젊은 개발자가 청춘을 불사르며 일에 전념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IT 구인 사이트를 뒤져봐도 2, 3년차의 초급 개발자를 원할 뿐 7, 8년 이상 된 중급 개발자를 원하는 예가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렇게 설 자리를 잃은 일부 중·고급 개발자들은 해외 취업이나 전직을 통해 국내 IT업계를 떠나고 있다. 바로 이것이 한국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바닥을 치고 있는 까닭이자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국내 개발자들의 처우 개선이 급선무다.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왜 부족한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IT 전문가들의 현장 이탈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사람이 모이는 않는 곳에 비전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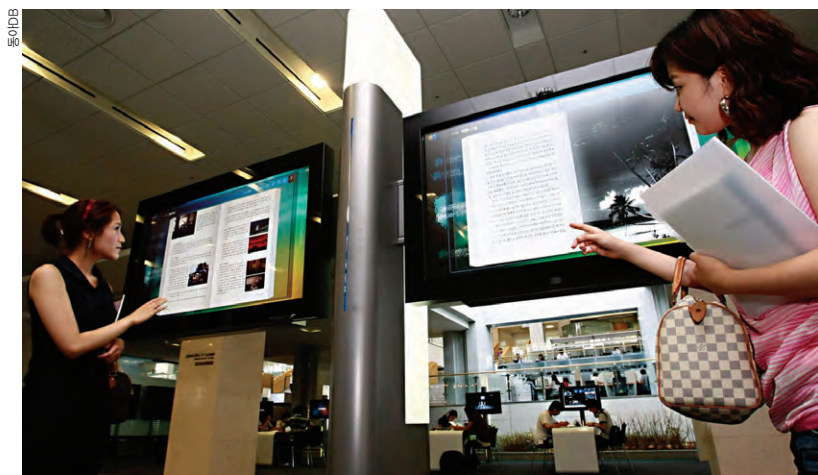
지금까지 기업들은 중급 기술자 한 명이 할 일에 초급 기술자 두 명을 채용했다. 설 자리를 잃은 중·고급 개발자들은 해외나 타 업종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이것이 한국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 요인이 됐다.

정부는 낙후된 소프트웨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세계 1백대 기업 8개와 매출 1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기업 27개를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기업 모두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행 중인 제도를 검토하고 IT업계의 무수한 폐단들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심성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진 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G

글 · 박경훈(HOONS닷넷 커뮤니티 대표)

박경훈은 SI 전문가이자 프로그래머로 2002년 IT업계에 입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Visual C#의 MVP에 5년 연속 선정됐으며, 그가 2002년 개설한 HOONS닷넷 커뮤니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세미나와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C# 게임 프로그래밍〉 등이 있으며, 영국에 체류 중이다.

동아DB

소프트웨어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우수한 개발 인력 육성이 중요하다.
사진은 연세대 유비쿼터스 라운지.

민주당 변재일(61) 의원은 참여정부 초기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IT정책 전문가다.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정보기술(IT) 관련 상임위원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변 의원은 9월 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IT코리아 미래 전략'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고 말했다. IT와 전통산업의 융합은 잘될 것 같아 기대가 크지만, 전체적으로 큰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라는 평가였다.

역대 정부의 IT산업 정책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에서 뒤처졌기 때문에 '제3의 물결'인 정보화 혁명만큼은 반드시 앞서나가야 한다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취임 초기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수집망을 총동원해 세계 IT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했을 정도입니다. 대통령에게 IT에 대한 철학이 있었고,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아 관련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초석을 닦은 것은 분명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IT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임기 후반에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IT산업이 정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IT산업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사업자가 제공한 IT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이용하면 사업자는 거기서 얻은 이윤을 다시 투자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장비와 기술이 발전하고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더 늘게 되고, 사업자는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게 선순환 구조입니다. 선순환 구조의 핵심은 소비와 이윤 창출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지상파DMB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기업에 수익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무료서비스 원칙을 세웠어요. 기업이 투자는 하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새로운 콘텐츠가 없으니까 소비자가 외면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현 정부도 4세대 서비

문방위 민주당 변재일 의원
"IT업무 총괄 조직 만들어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IT코리아 5대 미래 전략'에 대해 정치권, 특히 야당은 어떤 반응일까.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IT산업의 중요성과 정부의 IT정책에 대해 따끔한 충고를 들려줬다.

스인 와이브로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3세대 서비스인 3G 서비스의 필요성도 절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G 사업자들에게 경쟁관계에 있는 와이브로 사업까지 하라고 하니 제대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소비와 이윤 창출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 확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를 선정해 공급한다고 저절로 수요가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가 PC를 공급하고 학생은 물론 주부, 노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벌였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숙제를 내도록 교육부에 요청해 인터넷 사용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인터넷망 수요자가 늘어났고, 이는 곧 인터넷 콘텐츠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IT산업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적극 투자하고 소비자가 적극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IT코리아 5대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산업은 그 자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 융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IT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눈에 띕니다. 우선 주체가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로, IT산업 관련 주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빠져 있더군요.

IT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콘텐츠와 게임산업이고 이를 총괄하는 게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또한 IT서비스인 전자정부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가 행정안전부입니다. 가장 큰 알맹이가 빠진 IT 미래전략인 셈입니다. IT산업의 큰 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전략을 구상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IT산업이 한 차원 향상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중요합니다. IT산업은 그 자체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 융합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정부가 이런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답게 평가가 냉정하십니다. '그래도 이건 괜찮은 방안'이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IT산업이 한 차원 향상되기 위해서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중요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IT와 전통산업의 융합을 강조했지만 제대로 못했어요. 현 정부는 지식경제부에서 전통산업과 IT산업을 함께 관장하고 있으니까 융합 발전이 잘되리라 기대합니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IT와 의학을 결합하는 뉴헬스케어 사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원격조종을 통해 수술로봇으로 수술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워둬야 합니다. 원격조종한 의사냐, 현장에 있던 간호사냐, 수술로봇을 만든 제조사냐가 불분명해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현 정부의 IT정책에 대해 조언을 해주십시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4개 부처로 나눴습니다. 나름의 장점도 있겠지만 기능이 쪼개져 있다 보니 IT산업 전체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IT서비스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져갔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시기구이지 IT산업을 진흥시키는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기관입니다. 이제라도 IT 발전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전략산업부라든가 하는 식으로요.

또 하나 조언을 한다면 IT산업을 시장친화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전략적 판단만으로 기업에 투자를 강요했다가 소비자들이 외면하면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겠죠. 정부는 수요 창출에 기여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합니다. G

글 · 최호열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 '소녀시대'

지난해 제정된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 말까지 현재의 아날로그 방송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다.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된 인기 여성그룹 '소녀시대'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지(Gee)'에 이어 '소원을 말해봐'까지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활짝 웃는 얼굴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청순 발랄한 모습이 디지털 방송의 선명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해서 얼마 전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 위촉됐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도 다가오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으실 거예요.

디지털 전환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TV방송이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모두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각 지상파 방송사는 2001년 10월부터 디지털 방송을 준비해왔는데요, 그동안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과 방송 제작에 약 1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2012년까지 1조4천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이런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디지털 방송을 통해 고품질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 '시청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거실에서 만나는 영화관급 화질… 경제효과도 커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산악 지형이나 인공 구조물이 많은 국내 전파환경에서 시청자들은 기존 아날로그 방송보다 3~5배 이상 깨끗한 고화질 방송을 좀 더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소녀시대는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디지털 방송에 관한 홍보활동을 한다.

TV 화면 비율도 지금 같은 4:3 비율이 아닌 영화와 같은 16:9 비율로 바뀌어 훨씬 와이드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전달할 뿐 아니라 음질도 CD 수준으로 깨끗해집니다. 날씨나 증권, 뉴스 등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 방송 등을 안방에서 무료로 즐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인터넷만 연결하면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KBS, MBC, SBS, EBS 등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멀티모드 서비스(MMS)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날로그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난시청지역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방송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유용한 서비스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는 것 아세요? 국내 방송사 제작 설비 및 송수신 설비의 디지털화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제작하는 디지털 콘텐츠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HD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군요. 거기에다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에 사용됐던 일부 주파수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하니 기대할 만하겠죠?

디지털 방송을 즐기기 위해서는 시청자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방송 전송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이후에는 케이블방송 또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안테나를 통해 지상파 TV방송을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TV만으로는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현재 보고 있는 멀쩡한 TV를 버리고 디지털 TV를 새로 사야 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TV도 디지털 셋톱박스와 수신 안테나만 달면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든지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답니다.

아날로그 TV도 셋톱박스·안테나 연결하면 OK

물론 그 전에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현재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은 전국 약 86퍼센트 정도에서 수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전까지 수신 가능 지역의 비율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라고 하니 수신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겠죠? 특히 디지털 방송 전파를 수신하는 안테나는 송신소나 중계소(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신호를 보내주는 방송국 시설) 방향으로 향하게 했을 때 수신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디지털 방송, DTV Korea, KBS Digital 방송가이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가까운 송신소나 중계소 위치, 방송 수신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니 알아두시면 좋겠죠.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미리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지상파 디지털 본방송을 시작한 2001년 이후 준공된 공동주택은 대부분 수신 설비가 갖춰져 있지만 유료방송에 단체로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관리사무소에 지상파 디지털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2001년 이전에 준공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수신 설비만 돼 있거나 지상파 공동시청 설비를 유료방송(케이블)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시청 설비에 대한 별도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니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디지털 전환 홍보대사로서 저희 소녀시대도 고품질 방송 서비스와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 디지털 방송을 더욱 많은 국민 여러분께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방송정책과 Tel 02-750-2331
디지털 방송 www.dtv.go.kr
DTV Korea www.dtvkorea.org
KBS Digital 방송가이드 dtvguide.kbs.co.kr

대통령 IT특별보좌관 오해석

"IT로 전체 산업 업그레이드"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IT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오해석 특보에 대한 IT업계의 기대가 크다. 오 특보는 정부와 IT업계, 그리고 IT 각 분야 간의 소통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IT 발전은 물론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컨설턴트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 IT정책의 핵심은 IT 융합산업입니다. IT강국이라는 강점을 살려 전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IT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IT산업 종사자가 2백50만명가량 되는데, 처음으로 만들어진 IT특별보좌관에 대한 기대도 클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된 IT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오해석(58) 특보는 "25년간 IT업계에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성과를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IT특별보좌관은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IT 벤처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신설을 약속했던 직책으로, IT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IT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IT특별보좌관 신설과 오 특보의 임명에 대해 IT업계는 반가운 일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그동안 IT 정책의 혼선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갈망해왔던 업계로서는 큰 선물을 받았다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산업이 미래 산업의 인프라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역할을 주문했다.

현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IT 관련 업무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후 IT업계에서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나 예산 면에서 뒤로 밀린다는 'IT 소외론'이 나오기도 했다.

"IT업계에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게 원

인입니다. 부처별로 열심히 하는데 일원화된 소통 채널이 없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원활한 소통 채널이 되는 게 제 소임입니다. 또 혼선이 있으면 조정하는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그게 업계에서 말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6년간 경원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로 재직한 오 특보는 한국데이터베이스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회장, 한반도정보화추진본부 부본부장, RFID협회 고문, u-코리아포럼 부회장, 벤처지원포럼 회장,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장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을 갖추고 있어 IT특별보좌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IT특별보좌관은 새로 만들어진 직제인데 어떤 업무를 하게 됩니까.

IT 분야는 매우 복잡합니다. 산업과 연관된 분야뿐 아니라 정부와 기관의 정보화 분야도 방대합니다. 또 대학교와 전문대학마다 IT 관련 학과가 한두 개씩은 있으니 교육도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인터넷, 휴대전화, IPTV 등 IT 서비스 분야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이런 분야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정보화 분야는 답보 상태입니다. 정체된 분야를 고도화하는 게 당면한 문제입니다. 정부 각 부처, 연구소, 학계, IT업계 전문가들로 비공식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안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코디네이터와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턴트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IT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지향적인 IT정책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단기는 2010년까지, 중기는 현 정부 임기인 2012년까지, 그리고 영원한 IT강국으로 갈 비전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건물을 세우겠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건설의 공정관리기법을 IT산업에 적용해 투입예산과 계획대로 1백 퍼센트 달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중점추진사업을 결정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하드웨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PC,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와 통신 분야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드웨어 쪽 IT 수출액은 1천3백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소프트웨어 수출은 20억 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수출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IT 신산업 창출이 필요합니다. 종래의 IT산업으로는 파이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IT 신산업을 만들고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T인재 양성과 세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IT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과 맞물려서 IT 쪽도 우수 학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한 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IT산업이 발전하고 대우가 좋아지면 자연히 인재가 몰리게 되고 교육도 활성화될 겁니다.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우리 대학생들을 미국의 기업에 인턴으로 연수를 보내는 웨스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외국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외국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들어와 일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강국인 인도의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반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 IT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IPTV는 우리나라 IT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또 하나의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한계에 달한 현재의 인터넷보다 10배 이상 빠른 차세대 인터넷이 보급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IT 봉사도 중요합니다. 요즘 노인정마다 컴퓨터가 설치돼 있고, 노인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나도 누리꾼(네티즌)'이라는 젊은 기분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저개발국에 IT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민간외교사절단 구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IT 봉사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그린IT 산업에 대한 비전은 무엇입니까.

IT를 활용한 상품과 산업의 녹색화는 녹색성장을 위한 다른 어떤 기술의 활용이나 융합보다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그린 IT 정책은 자칫하면 백화점식 나열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이 그린IT 분야에서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IT는 기술 발전과 변화가 매우 빠른 분야다. 오 특보는 "지속적으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처럼 계속적인 투자와 인재 양성, 산업 육성이 없으면 IT강국의 위상을 유지할 수 없다"며 "IT가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 문화대사 고두심

제주 물 허벅에 델피 성수 담아왔죠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지구촌 문화예술 행사인 제주세계델픽대회의 문화대사를 맡았다. 개막식에서 델피와 백록담의 성수를 합수하고, 제주 사투리로 시를 낭송하는 등 그는 '제주의 딸'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연합

9월 5일 제주시 돌문화공원 '하늘연못'에서 제주세계델픽대회 문화대사인 탤런트 고두심씨가 고훈식 시인의 '누웡사 못 걸으난(누워서는 못 걸으니까)'이라는 제주어(語) 시를 낭독하고 있다.

"제주에서 치러지는 문화행사라면 제가 참여해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향 행사이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의 문화대사를 맡았다. 지구촌 문화예술 행사인 이번 델픽대회에는 54개국 참가자들이 음악, 공연, 언어, 공예, 건축 및 소통과 사회예술 등 6개 분야 18개 종목에서 예술 경연을 벌였으며, 전시와 문화탐방 등 비경연 축제도 함께 즐겼다. 세계델픽대회는 기원전 582년부터 기원후 394년까지 약 1천 년 동안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리스 델피에서 열린 문화예술제전 '델픽 게임(Delphic Games)'에서 유래했고, 200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회 대회가 열려 세계의 '문화올림픽'으로 재연되기 시작했다. 2005년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2회 대회가 열린 데 이어, 이번에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가 '자연과 더불어'를 주제로 개최됐다.

고 씨는 지난 7월 그리스 델피의 아폴론 신전 근처 카스탈리아 샘에서 성수(聖水)를 제주 물 허벅(물을 담는 옹기)에 직접 담아왔다. 이 성수는 9월 9일 제주세계델픽대회 개막식 행사에 등장했다. 이종덕 조직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판소리 가락 속에 고 씨가 그리스까지 날아가 직접 담아온 델피의 성수와 한라산 백록담의 성수를 합치는 합수(合水) 의식을 김태환 제주지사와 함께 경건하게 진행한 것이다.

앞서 9월 1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열린 성수 나눔 행사에 참여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증한 소나무 분재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도시에서 봉송된 성수를 뿌리며 제주세계델픽대회를 알리기도 했다.

5일에는 대회 사전행사로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린 '시 낭독회'에도 참여했다. 제주 특유의 사투리 맛을 살려 정지용의 '향수'와 고훈식의 '누웡사 못 걸으난(누워서는 못 걸으니까)'을 낭독한 것이다. 고 씨는 시 낭송 전부터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다. 평소 제주를 방문할 때도 사투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를 자주 찾는다는 그는 제주 말을 살리는 데 책임감을 느낀다.

"제주는 자연이 정말 좋고 인심도 후해요. 관광지로 변하면서 눈앞의 이득 때문에 변하는 게 안타까워요. 제주의 본래 모습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장소죠."

"제주 사투리를 어릴 때부터 썼고 많이 알죠. 제주 사투리와 표준어로 번갈아 시를 낭독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고훈식, 김생진, 한기팔, 현주하 선생님 등 제주 출신 문인들이 책을 내시면 제게 보내주시기도 하고 직접 뵐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항상 고맙죠."

'제주의 똘(딸)'이라고 불릴 만큼 제주를 대표하는 여성으로 알려진 고 씨의 고향 사랑은 지극하다. 제주 남문동(지금의 중앙로)의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태어나 여고 시절까지 보낸 후 서울로 올라와 배우로 살아온 그에게 제주는 늘 어머니 같은 존재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또 어머니가 사랑하는 제주, 어머니 같은 제주를 사랑한다."

이처럼 고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www.kodoosim.com) 속 '사랑 일기'에 언제나 제주와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김만덕기념사업회' 공동대표로 활동… 기부확산 운동도

"제주는 자연이 정말 좋고, 토박이들은 인심도 후하고 정도 많아요. 관광지로 변하면서 현실적인 눈앞의 이득 때문에 변해가는 게 안타깝지만 제주의 본래 모습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하는 장소죠.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해서 6년 전에 제주를 걸어서 일주했는데 정말이지 아름답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었어요."

'김만덕기념사업회'의 공동대표로도 활동하는 고 씨는 오는 10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김만덕 나눔 쌀 만 섬 쌓기' 행사를 열고 기부문화 확산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델픽대회로 제주를 오가는 와중에도 기념사업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김만덕 할머니는 훌륭한 분이에요. 조선 정조 때의 인물로 제주 출신의 거상이었죠. 어린 나이에 고아가 돼서 기생으로 자라다가 관적에서 이름을 빼고 객주 집을 차려요. 보릿고개로 다들 배고파 죽게 되니까 전 재산을 털어 3년간 죽을 쑤어서 사람들을 살리죠. 그 정신이 너무 좋아 제가 1977년에 김만덕 할머니를 다룬 일일연속극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에는 먼저 쌀 천 석 쌓기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유엔이 정한 '빈곤퇴치의 날'에 쌀 만 섬 쌓기를 광화문에서 할 예정이에요."

늘 바쁜 고 씨가 이렇게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배우가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는 직업의식 때문이다.

"배우라는 직업이 신뢰감을 줘야 하는 데다 일 자체가 문화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관련 분야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어요. 많은 배우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고 배우라는 직업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이 싫으면서도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하고 싶은 일에 뛰어들어 굉장한 행운을 얻고 살았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이젠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죠."

고 씨가 에너지 넘치게 사는 비법은 "항상 부지런하게 뭔가를 계획하고 철저히 일하고 철저히 쉬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기만큼이나 고향 사랑에 몰입하며 제주의 문화대사이자 제주의 딸로 하루하루를 뜻깊게 살아가고 있다. G

글 · 변인숙 객원기자

제주세계델픽대회 홈페이지 delphic2009.com

연합

제주세계델픽대회 문화대사인 제주 출신 배우 고두심 씨가 여사제 피티아로부터 성수를 받아 들고 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키점프 국가대표팀

"총 선수 4명… 연봉 390만원 그래도 점프대 서면 행복합니다"

영화 한 편으로 떴다. 연기자도 감독도 아니다. 주인공은 영화의 '재료'다. 영화 〈국가대표〉는 비인기 종목인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의 이야기를 다뤘다. 국내에서 비인기 종목을 소재로 다룬 영화는 많지 않다. 영화마저 '비인기'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스키점프처럼 영화가 7백만 관객을 돌파하며 고공비행 중이다. 영화 덕분에 스키점프 국가대표팀도 어느 순간 떴다.

영화 〈국가대표〉는 비인기 종목인 스키점프 국가대표 선수들의 열악한 환경 속 좌충우돌 훈련과 대회 출전담을 담고 있다. 영화 속의 스키점프 대표팀과 현실에서의 대표팀은 그리 다르지 않다. 열악한 환경은 오십 보 백 보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인 법. 과장과 각색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극적인 효과와 재미를 위해 군데군데 실제 국가대표팀과는 다른 점들이 눈에 띈다.

실제 국가대표팀 김흥수(29) 코치는 미혼이다. 영화에서 방코치(성동일 분)는 다 큰 딸이 있는 50대 전직 스키강사다. 김코치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저보고 말썽쟁이 딸이 잘 있냐고 물어봐요. 미혼인 저한테 그러니 혼삿길 막힐 것 같아 무섭죠"라고 웃었다.

실제 국가대표 선수인 최흥철(28)과 강칠구(27)는 그대로 이름이 영화에 사용됐다. 영화배우 김지석이 강칠구를, 김동욱이 최흥철로 분해 열연했다. 강칠구는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김용화)이 제 이름과 흥철이 형의 이름을 들어보더니 느낌이 좋다며 그대로 영화에 쓰자고 했다"고 밝혔다.

영화에서는 이처럼 실제 국가대표팀 상황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일단 이들이 훈련하던 무주리조트의 스키점프대는 올림픽 유치와는 상관이 없다. 1997년 전북 무주에서 개최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 만들었다. 또 무주는 2002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다가 떨어진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무주는 국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탈락해 실제로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가 된 적이 없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뛰어든 도시는 강원 평창이다.

또 영화에서 대표팀 선수는 후보까지 포함해 5명이다. 실제 대표팀 선수는 최흥철, 강칠구, 최용직(27), 김현기(26) 단 4명뿐이다. 영화에서는 대회 도중 4명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부상하게 되자 후보 선수가 대신 나선다.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일단 엔트리에 등록을 하면 경기 중에는 선수를 바꾸지 못한다.

달리는 승합차 천장에 올라가 중심잡기와 허리에 끈을 매달아 위로 들어 올리는 훈련을 하는 장면도 영화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으로 각인됐다. 최용직은 "이젠 그런 무식한 훈련은 하지 않는다. 스키점프도 과학적으로 훈련한다"며 웃었다. 비 오는 날 훈련은 현실에서도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처럼 선수들이 즐거워하며 하는 것은 아니다. 강칠구는 "옷이 비에 젖어 무거워지는 등 힘든 점이 많아 선수들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동아DB

스키점프 국가대표 김현기가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떨치고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높이, 그리고 멀리 비상하고 있다.

9월 3~5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평창 스키점프 대륙간컵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김현기는 K-125 경기(채점 기준 비행거리 1백25미터) 금메달, K-98경기(1백9미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내에서 10년 만에 열린 이번 스키점프 국제대회에 관중들이 1만여 명이나 몰렸다. 비인기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관중이었다.

김현기는 "관중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몰려 당황스러웠다. 외국 선수들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놀랐다. 오랜만에 외국 선수들 앞에서 어깨를 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스키점프 국가대표팀은 막내 강칠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국내에 스키점프가 처음 도입된 1991년부터 무려 18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스키점프를 시작한 '1세대'인 이들은 새로 들어오는 선수가 없어 10년 가까이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대한스키연맹 등록 선수는 10명 남짓. 하지만 이들 4명 외에는 국제대회에 출전할 만한 기량을 갖춘 선수가 없다. 일본만 하더라도 스키점프 선수는 6백여 명. 유럽은 수천 명이 넘는다. 최용직은 "자주 대회에 나가다 보니 타국 선수들이 '또 너희들이냐' 며 놀라워한다"고 말했다.

비인기 종목인 만큼 이들의 현실은 힘들다. 김 코치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받는 돈은 하루 3만원의 훈련수당으로 1년에 3백9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에서 딴 메달 덕분에 매달 45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모두 훈련 때의 경비로 들어간다. 유니폼도 제대로 없어 1년에 한두 벌로 버티다 찢어진 옷을 입고 경기에 나서기도 한다.

생계를 위해 이들이 해보지 않은 아르바이트가 없다. 막노동은 기본, 인형 탈을 쓰고 놀이동산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올해 해외 전지훈련 때 비행기 티켓은 외상으로 끊었다. 다행히 지난해 최흥철과 김현기가 실업팀 하이원에 들어갔다. 연봉도 일반 직장인 수준인 데다 훈련비용까지 지원받는다.

"내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좋은 성적 낼 자신 있어"

하지만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다. 실업팀 창단 얘기도 있고 하이원에서 영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말만 나오고 있다. 김현기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 취업을 한 팀이 없는 선수들 때문에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행히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지원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대표팀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왔다. 2003년 이탈리아 타르비시오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단체전 금메달, 올해 중국 하얼빈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 2개 등 국제대회 입상이 이어졌다.

이제 이들의 목표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다. 강칠구는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세계 수준과 큰 차이가 났으면 그만뒀겠지만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계올림픽까지의 길은 아직도 험하기만 하다. 훈련경비가 모자라 올해 11개 정도의 해외 월드컵대회에 참가할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이들은 함께 점프대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이들이 내년 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스키점프의 인기를 몰 수 있을지, 영화 〈국가대표〉 속편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G 글 · 김동욱(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동아DB

스키점프 K-125 경기에서 우승한 김현기(왼쪽에서 두번째)가 입상한 동료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6위를 한 최흥철.

송지은 씨(왼쪽)와 김두경 씨는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의 서예가 김두경(50) 씨는 오래전부터 작품 활동과 후진 양성을 하면서 '서예'와 '한글'을 대중과 좀 더 밀접한 예술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실제 그는 '한글 서체를 이용한 장식타일'을 구상했다.

"한글 서체를 이용한 장식타일은 건축시장에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면, 교훈이 새겨진 타일로 학교를 장식할 수도 있고 기업의 이념이 새겨진 타일로 회사의 내·외벽을 장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업화하기에는 힘에 부쳤다. 무엇보다도 '한글 서체를 이용한 장식타일'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화할 수 있는지를 몰랐다. 한글 서체를 이용한 건축용 장식타일은 건축 회사들이 써주지 않는 한 무용지물에 가깝다. 김 씨는 건축 회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마케팅이나 유통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 37개 아이디어 채택

아이디어 하나로 나도 1인 기업가

전문기술이나 경력, 자본금이 없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독특한 콘텐츠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나섰다.

방법을 모르기에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실낱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김 씨는 5천만원의 개발 지원금을 받아 샘플용 장식타일을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 출원에서 저작권 등록, 기술 개발과 마케팅 및 유통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는 "앞으로 건축의 특징까지 살려낼 수 있는 한글 서체를 개발해 서예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지은(31) 씨도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꿈을 현실화할 수 있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예를 전공한 송 씨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백수'였다. 식기 회사에 디자이너로 지원하기도 했지만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에 실패했다고 꿈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섰다.

"비싸서 사기 힘든 장식용 도자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저렴한 도자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만들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고민하다 '도자를 이용한 커피 드리퍼'를 만들게 되었죠."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전문기술이나 경력이 부족한 개인, 특히 상상력과 재능이 풍부한 청년층은 물론 오랫동안 자신만의 꿈을 간직해온 장년층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평가받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자기 커피 드리퍼는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 단색에 밋밋한 제품들이다. 반면 송 씨가 만든 커피 드리퍼는 우리 전통 문양 등 창의적 디자인을 도입해 품격을 높였다. 그는 도자 드리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동안 재료비는 아르바이트비로 충당해나갔다.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 힘든 줄도 몰랐다.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송 씨의 '도자를 이용한 커피 드리퍼' 아이디어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덕분에 이제 그는 재료비나 사업비에 대한 부담 없이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실용성과 함께 미적 감각까지 갖춘 다양한 커피 드리퍼 디자인 개발에 전념할 생각이다.

김 씨와 송 씨처럼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전문기술, 지식 등을 바탕으로 창업해 경제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인의 창의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분야야말로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부합하고 실제로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다. 출판기획, 문화기술(CT) 콘텐츠 및 관련 기술 개발,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멀티유즈를 고려한 사업 아이디어가 전문 심사단의 꼼꼼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김 씨의 '한글 서체를 이용한 장식타일' 개발과 송 씨의 '도자를 이용한 커피 드리퍼' 외에도 캐릭터 콘텐츠 개발, 동화책, 개인 맞춤형 동영상, 보드게임, 의료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37개가 채택됐다.

대상 선정되면 개발금 5천만원 · 유통 등 실질적 지원

이 아이디어들은 콘텐츠 제작 및 기술 개발, 저작권 등록 및 거래, 시장조사, 창업교육, 마케팅 및 유통 등 일련의 사업화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결과 시장성과 사업성이 인정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등록 및 관련 기업과의 거래, 유통, 마케팅도 지원받게 된다.

이 같은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은 전문기술이나 경력이 부족한 개인, 특히 상상력과 재능이 풍부한 청년층은 물론 오랫동안 자신만의 꿈을 간직해온 장년층에게 자신의 아이디어와 재능을 평가받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예전에는 창업 지원정책이 정보기술(IT) 또는 신기술 등 일부 분야에 한정되었고, 지원대상도 사업자나 법적인 기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 '콘텐츠 1인 창조기업'을 통해 누구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고부가가치 콘텐츠 상품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 실업 해소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 사진 · 정경택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 Tel 02-3153-1297 kocca.kr

9월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사업에 선발된 37명의 참가자가 모여 창업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와이어로프 소형 골막이 사방댐 개발

"산사태 막고 자연친화 일석이조"

우리나라는 산지와 하천이 가파르고 짧은 곳이 많아 산사태와 홍수 피해가 크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은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개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근 5년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하게 늘었다. 피해 복구를 위해 들이는 비용만도 연간 7백80억원이나 된다.

산사태와 홍수 등에 대비해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산림청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다. 강원 영서·수도권지역의 국유림을 관리하는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공무원들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자연재해를 줄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다른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개발해 치산치수에 커다란 공을 세운 것이다.

사방댐은 본디 장마철 집중호우로 쓸려온 토사와 생나무가 하류로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산림토목시설물이다. 대규모 산사태나 수해를 막는 버팀목 구실을 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또한 물을 저장해 가뭄을 극복하고 산불을 끄는 데에도 이용돼 일

북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모아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개발했다.

동아DB

동아DB

사방댐은 산사태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왼쪽). 사방댐으로 부족한 곳에는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건설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석삼조의 다용도 기능을 한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천4백여 곳에 사방댐이 건설됐고, 올해는 7백30여 곳에 새로 설치됐다.

사방댐은 폭 30~40미터의 비교적 큰 산간 하천을 중심으로 설치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산지와 하천은 가파르고 짧은 지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사방댐만으로는 산사태와 홍수를 효율적으로 막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게다가 근래에 자주 발생하는 수해는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한 계류에 설치된 사방댐 한두 개로 많은 토사와 유목(流木)을 막기엔 무리가 있었다.

현장 근무 10년 베테랑 5명 머리 맞대 개발

이에 소규모 산간 계곡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만 수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기존 사방댐 상단의 소계곡, 임도 상단부의 계곡, 수해다발지의 소계류에 소규모 골막이 사방댐을 만들어 대규모 사방댐의 기능을 보조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규모가 큰 기존 사방댐의 결점을 개선하면서 국민의 세금도 절감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5명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 지난해 그 해답을 찾았다. 바로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개발을 주도한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이상린 소장은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은 산림토목 분야 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일터에서 얻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실무에 적용한 성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사방댐이 폭 30~40미터의 하천에 설치되던 것과 달리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은 침식이나 산사태가 우려되는 폭 8~20m의 소규모 산간 계곡 상단이나 소하천에 설치된다. 이로써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자칫 대형화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경사가 급한 소계류의 상부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전석(轉石), 유목을 동시에 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계곡 하단부에서 인명 및 농경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소장은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은 우리나라 산림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대형 사방댐을 시공하는 데 2억~3억원의 비용과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소형 골막이 사방댐은 3천만~5천만원의 정도의 비용과 1, 2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또한 기존의 대형 사방댐에 비해 보수 비용도 훨씬 절감된다. 사방댐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경우 댐의 규모가 작아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해 수리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소형 골막이 사방댐은 댐의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주변 산림의 훼손이 적다. 게다가 기존 사방댐이 외관을 콘크리트로 마감한 것에 비해 소형 골막이 사방댐은 외관을 목재로 마감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효과도 크다.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은 폭 8~20m의 소규모 산간 계곡 상단이나 소하천에 설치된다. 기존에 설치된 사방댐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자칫 대형화될 수 있는 홍수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 기술로 지난해 6월 국유특허를 취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치산 분야의 독자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고 보급하기 위해 산림청이 주최하는 ‘제2회 신기술·신공법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감사원도 지난 5월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소형 골막이 사방댐을 경기 포천에 시범 설치하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등 숲의 생태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하고 풍요로운 숲을 가꾸고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북부지방산림청이 있기에 희망은 있다. G

글 · 백경선 객원기자

"군대 가면 몸짱 된다" 논문으로 입증한 국방부 이현주 주무관

저체중·비만 입대 후 87% '정상'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군대 가면 건강해지고 사람 된다'는 속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군 입대 전후의 체질량지수(BMI)를 비교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7.4퍼센트가 입대 후 BMI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DB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이 사실로 밝혀졌다. 국방부 이현주 주무관은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속설이 사실로 입증됐다. 국방부 보건정책과 이현주(39) 주무관은 인제대 보건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입대 전과 후 사병의 체질량지수(BMI)를 비교해 입대 후 지수가 개선된 사실을 밝혔다.

"과거엔 키나 몸무게 초과 혹은 미달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BMI 수치를 통해 판정을 내립니다. 군대에서 비만을 주제로 연구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BMI 수치를 기준으로 징병검사를 시작하면서 이 수치를 입대 전후로 비교하면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입대 후 평균 1년이 지난 전후방 현역병 3백1명을 대상으로 입대 전후 BMI를 비교한 연구논문에서 저체중, 비만, 고도비만인 병사는 입대 전보다 그 수가 줄어든 반면 정상체중, 과체중인 병사의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택 기자

국방부 이현주 주무관.

입대 전 BMI는 훈련소 입소 당일 실시한 입영 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조사 결과 입대 전 13명이었던 저체중 병사는 입대 후 2명으로, 22명이었던 고도비만 병사는 4명으로 크게 줄었다. 비만인 병사도 69명에서 52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정상체중인 병사는 1백33명에서 1백59명으로 늘어났고 정상체중을 약간 벗어난 수준인 과체중 병사도 64명에서 84명으로 증가했다.

"입대하면 건강해져" 속설 수치로 뒷받침

"기본적으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등이 병사들의 체력상태를 개선하는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대원들이 체중조절 교육을 받은 부대일수록, 상급지휘관이 부대원들의 비만 문제에 관심을 갖는 부대일수록 부대원들의 건강상태는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무관은 입대 전 BMI 수치에 따라 병사들을 '저체중·정상체중·과체중군'으로 재분류한 다음 몇 퍼센트나 정상군에 편입(혹은 정상군 상태 유지)되는지 알아봤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87.4퍼센트가 입대 후 BMI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막연히 '군에 가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해왔지만 이번 연구는 이를 수치로 뒷받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휘관의 관심이 병사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부대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군 보건정책 수립 시 지휘관이 함께 참여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무관은 향후 조사 대상을 더욱 확대해 군 장병의 체력과 전투력을 증진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최철호 객원기자

4대강 살리기
제22화
엉엉
엉엉
큰가시고기
큰가시고기목 큰가시고기과
학명: Pungitius sinensis
풍지티우스 시넨시스
글·이연수 그림·이호

와 저러노?
엉
엉
송어
연어목 연어과
학명: Oncorhynchus masou
온코린쿠스 마소우

신혼여행 가던 중에 신부가 죽었다 안카나.
와? 어쩌다?
쯧쯧
웅어
청어목 멸치과
학명: Coilia nasus
코일리아 나수스

하구둑에 있는 어도(魚道)를 넘다가 그만….
뭐시라!
여봇!
엄마야!

그놈의 하구둑 정말 문제 아이가!
알 낳으러 가는 신혼여행이 와 죽음의 여행이 돼야 하노? 응?

내 그놈의 낙동강 하구둑 다 뽀사뿐다!
아이고~

참아라. 하구둑 없으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인간들도 곤란한 모양….
그 하구둑 때문에 홍수처리 제대로 안 돼 난리 치는 거 니 못 봤나?
놔라 마!

아, 쫌! 조만간 어도도 안전하게 고치고 배수문도 증설한다 안카나!

그래? 진짜?
툭

그럼 내도 장가갈 수 있는 기가?
헉!
어느 가스나가 니한테 가겠노?

니 죽고 싶나?

시각장애인 공증 관련 규제 완화

가족과 함께 가면 공증 문제없어요

3중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모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제한은 장애인에게 넘기 힘든 모험이자 장애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장애가 됐던 공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난해 가을 시각장애인 A씨는 갑자기 딱한 사정이 생긴 친구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문제는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 A씨는 B씨와의 채권채무 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자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공증사무소를 찾아갔다. 공증인은 A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알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참여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공증인법에 따르면 공증을 맡기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제대로 서류가 작성되는지 확인해줄 참여인이 있어야 공정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A씨는 마침 아내와 함께 공증사무소를 찾았던 터라 "아내를 참여인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증인은 "공증을 맡기는 사람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맹자인 경우 배우자나 친족은 참여인이 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며 공정서류 작성을 거절했다.

참여인 자격은 공증인법 제3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친족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A씨 아내는 시각장애인이나 문맹자가 아니었다. 다만 친족(배우자 포함)인 게 문제였다. A씨는 마땅히 데려올 친구가 없었다. A씨는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내인데, 아내 아니면 누구를 믿느냐"고 항의했지만 공증인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참여인을 구하지 못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찜찜한 기분으로 공증사무실을 나와야 했다.

공증인법 개정으로 배우자·친족 참여인 자격 제한 풀려

이처럼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참여인이 필요하지만 공증을 맡기는 사람의 배우자나 친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어 A씨처럼 불편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다. 공증은 여러 가지 법률행위, 사적 권한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이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등을 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편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법제처와 함께 국민불편법령 개선사업의 하나로 공증법 개정을 추진했고 '시각장애인 공증 촉탁 시 참여인 자격제한 차별 개선방안'이 지난해 7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후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7일 시행을 목표로 올해 2월 6일 시각장애인의 공증과 관련한 공증인법 제33조 3항의 개정안이 공표됐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공정서류 작성 시 참여인 자격이 제한돼 있던 친족(배우자 포함)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개정 후라도 시각장애인의 배우자나 친족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맹자 또는 공증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동거인 역시 참여인 자격이 없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2007년 기준으로 약 21만7천명, 전체 장애인(약 2백10만5천명) 중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G

글·박경아 기자 / 사진·정경택 기자

변호사,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적 권리 등을 인증받는 공증과 관련,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제가 개선된다.

세상에서 가장 먼 길

글과 그림·최영순

백 번의 반성과 백 번의 자각보다 단 한 번의 행동이 선(善) 그 자체가 아닌가.
백 번의 깨우침과 백 마디의 미사여구보다도 단 한 번의 행동의 어려움. 아아, 제발 비옵건대
내게 그런 자각을 느낄 수 있는 지혜보다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 소설가 최인호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중에서

도박중독 예방, 정부가 돕습니다

도박중독 예방주간 지정… 연극·콘퍼런스 등 행사

예부터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기 일쑤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도박중독 예방주간'에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동아DB

도박중독 예방주간에는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삶을 다룬 연극 '돌아오는 길'(사진)이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매일 무료로 상연된다.

지난 1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은 평범한 주부들에게까지 도박의 손길이 뻗쳐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도박에 중독된 보통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 예방주간'을 제정해 매년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09 도박중독 예방주간'은 9월 14일부터 19일까지로 정해졌다. 이 기간에는 9월 17일 '제1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로드투어, 연극 '돌아오는 길' 공연, 국제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선포식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도박중독 회복자의 자기성취와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난타 공연, 홍보대사 위촉, 청계천 광장 주변에서의 거리 행진 등이 이어진다.

국가 차원 예방 치유 프로그램 개발 나서

도박중독 예방 명예홍보대사는 연예인 임호, 이경실, 김태현, 박슬기 씨가 맡는다. 또 난타 공연은 도박중독 회복자들과 가족 11명으로 구성된 공연팀 '흥을 찾는 사람들'이 직접 선보인다.

예방주간 동안 매일 진행되는 로드투어에서는 서울 명동, 강남역, 종로 등지를 중심으로 도박중독 자가진단, 난타 공연, 도박용품 자진반납 프로모션 등이 펼쳐진다. 또한 연극 '돌아오는 길'도 예방주간 동안 매일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막을 올린다.

연극은 한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삶을 통해 도박중독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방안을 모색한다. 명예홍보대사인 임호 씨가 주연을 맡은 이 연극은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지원으로 전석 무료로 제공된다. 관람 순서는 예약자 우선이므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국제 콘퍼런스'는 도박중독의 이해와 사회적 대처방안을 주제로 9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권위자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도박중독의 최신 동향과 선진지식을 공유하고 토론해 국가 차원의 예방치유 프로그램 개발을 돕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2007년 9월 17일 발족했다.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연극 '돌아오는 길' 예약 Tel 02-3673-2561

현대미술의 새 영역을 만나다

이병용 유작展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일시	10월 25일(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요일 오후 9시까지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제7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188-6000 www.moca.go.kr

국립현대미술관이 기획한 이병용 유작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1978년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2001년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하기까지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병용(1948~2001)은 1970년대 초 전위그룹 '에스프리'를 비롯해 여러 아방가르드적인 단체에 참여하는 등 현대미술의 흐름에 적극 가담했지만 70년대 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한국 미술계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다. 하지만 그의 작가정신은 미국에서 더욱 또렷하고 진지하게 되살아난다.

작가는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에서 자신의 조형세계를 되돌아보는 한편 초심으로 돌아가 드로잉 형식으로 제작한 '의자' 시리즈를 시작으로 '고추' '알' '삶' 시리즈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동양과 서양, 정신과 물질, 구상과 추상 등의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현대미술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 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크게 3부로 나뉜다. 1부 'NEW YORK 1978~1986'은 뉴욕 이주 초기의 작품인 '의자' '옷걸이' '배' 연작들로 꾸몄다. 2부 'NEW YORK 1987~1994'는 프랫대학원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뉴욕생활에 접어드는 시기의 작품인 '고추' '알' 연작으로 구성됐다. 3부 'HAWAII 1955~2005'는 문명세계를 떠나 섬에 정착하며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한 '삶' '흙과 더불어' '모퉁이 돌' 등의 작품으로 엮었다.

생전에 작가는 "뉴욕에 간 것은 밖을 알기 위해서였지 나를 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를 찾는 작업, 말하자면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이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낯선 이국땅에서 외로움과 역경을 딛고 그가 찾아낸 예술세계는 10월 25일까지 만날 수 있다. 작품설명회는 평일 오후 2시와 4시, 주말 오후 2시, 4시, 7시에 열린다. G

글 · 김지영 기자

춤극 '가야'

일시	9월 19일(토)~23일(수)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으뜸석 7만원, 딸림석 5만원, 버금석 3만원, 버금딸림석 2만원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우리 춤 역사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문화강국 가야의 춤이 복원된다. 국립무용단 제92회 정기공연인 춤극 '가야'는 우륵이 만들었다는 가야금 12곡의 흐름에 따라 천년왕국 가야의 삶과 예술을 화려하게 선보인다. 안무자 국수호 씨는 일본과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와 작가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 가야의 아름다운 춤과 함께 음악, 소품, 장신구 등도 그대로 재현된다.

인형극 '모차르트 마술피리'

일시	9월 18일(금)~20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3시, 7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VIP석 10만원,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의	02-582-0040 www.sac.or.kr

오스트리아 빈 쇤브룬 궁전 소속의 '마리오네트 인형극장'이 펼치는 고품격 인형극. 1999년 국제인형극제 1위, 2000년 세계인형예술축제 1위, 2002년 국제인형축제 1위를 차지한 마리오네트 인형극장이 이번에 선보이는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다. 줄거리가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 작품은 지루함을 덜기 위해 2시간이 넘는 오페라를 1시간 정도로 각색해 동화처럼 아기자기하고 재미있게 꾸몄다.

남도의 푸른 바다 별처럼 박힌 섬 그 곳에 가고 싶다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섬 여행

김준 지음 / Y브릭로드 · 15,000원

수평선까지 뻗어 있는 바다, 봉긋하게 솟아오른 산, 너른 들판을 담은 섬은 대자연의 축소판이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섬사람들의 바지런한 모습은 하루도 빠짐없이 오가는 물때(조류)를 닮았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섬에 가면 고단하지만 평온한 삶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섬을 찾는다. 섬에서 잊었던 삶의 감사함을 깨닫고 버렸던 삶의 열정도 되찾는다. 남도에 있는 섬 서른세 곳의 이야기를 풀어낸 〈바다에 취하고 사람에 취하는 섬 여행〉의 저자 김준(47) 씨 역시 이런 이유로 처음 섬과 연을 맺었다. 어촌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며 여러 섬을 드나들다가 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후 그는 주말과 휴일마다 전국의 섬들을 찾아 헤맸다. 그게 벌써 17년째다. 그가 다녀온 섬들만 해도 1백50군데가 넘는다.

그중에서 자연과 섬사람들의 생활이 잘 보존돼 있는 남도의 섬 소안도, 홍도 등 서른세 곳에서 겪었던 추억의 보따리를 풀어놨다. 이 섬 저 섬 '제 집 드나들듯' 발품 팔아가면서 들었던 섬마을 사람들의 질퍽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에는 다른 여행서와 달리 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뱃삯, 여객선 시간표 같은 여행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대신 섬의 역사와 전설, 섬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등 섬에 관한 하나부터 열까지를 세세하게 전해준다. 섬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치 그 섬이 왠지 어렸을 적 한 번쯤 놀러 갔던 곳처럼 정겹게 느껴질 정도다.

17년 발품 팔아 이 섬 저 섬… 섬사람 삶 녹여내

저자는 찾아가본 섬 가운데 소안도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물때, 갯것 등 섬사람들이 쓰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서른 살의 그가 소안도에서 만난 섬사람들을 통해 섬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됐던 것이다.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알려질 만큼 용맹했던 섬사람들의 이야기, 개(바다)를 막아 숭어와 낙지 등을 잡는 개매기(고기잡이) 체험은 그에게 섬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려준 첫 만남이었다.

홍도도 그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섬이다. 바람이 세기로 유명한 홍도는 태풍이 한번 오면 뱃길이 최소한 사흘은 끊긴다. 태풍이 오기 전 남자들이 모두 배를 몰고 근처 흑산도로 대피하기 때문이다. 마침 저자가 홍도에 갔을 때 태풍이 불어 관광객과 남자들은 모두 흑산도로 떠났다. 그러나 그는 여자들만 있는 섬에 남아 여행을 계속했다며 홍도 안에서 '청일점'이 됐던 재미있는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 섬은 아름답다. 푸른 바다를 껴안은 섬은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천혜의 자연빛깔을 가득 머금고 있다. 그래서 자연과 이야기가 담긴 섬 여행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2천여 개의 섬들로 반짝이는 남도에서 대표적인 서른세 곳의 특별한 섬 이야기를 따라 섬 여행을 떠나보자.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섬인 청산도와 증도, 1960년대 프로레슬러 김일 덕에 전기가 들어와 김 양식을 하게 됐다는 거금도 등도 가는 길은 멀고 힘들지만 막상 섬에 도착하면 섬의 아름다움과 몰랐던 옛 이야기에 빠져버린다는 게 저자의 이야기다.

현재 전남발전연구원에서 해양관광팀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는 앞으로도 자신이 만나왔던 섬에 관한 책들을 낼 계획이다. 그런 그에게 과연 섬은 무엇이냐고 묻자 단번에 '섬은 삶이다'란 대답을 내놓았다.

"젊은 시절을 섬에 미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섬을 빼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할 때 가장 포근한 마음이 듭니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마주한다는 자세로 떠나기 때문이죠. 남도의 섬과 바다에 씨줄과 날줄로 얽힌 섬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 G

글 · 김민지 기자

4대강 살리기
알뜰하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국가 예산 2~3%로 홍수와 가뭄을 근원적으로 예방합니다
- 최근 4년간 수해복구와 예방비로 16조원이 들었습니다.
- 이제 사후복구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0년간 방치했던 수자원과 생태계를 되살립니다
- 오염원을 차단하고 첨단보를 설치해 깨끗한 강물로 복원합니다.
- 자전거 도로, 둔치공원 등 전국의 강변과 지역문화가 살아납니다.

4대강 살리기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 34만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옵니다.

내년 SOC예산은 적정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올해 SOC예산이 한시적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발전 등에 효과가 큰 사업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미리 대비!
녹색성장 일류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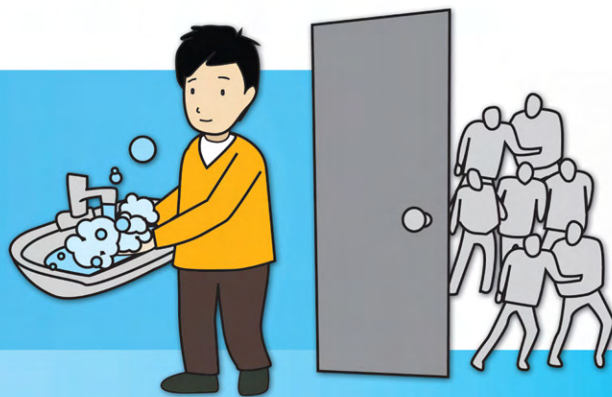
대한민국정부

www.cdc.go.kr

함께 지켜주세요

우리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외출 후에도, 평소에도 손 씻기를 습관화해주세요.

에티켓도 잘 지키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면,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는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사람 많은 곳은 조심조심!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해주세요.

걱정없이 회복을!

신종인플루엔자는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경증의 건강한 사람은 항바이러스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편히 쉬고, 많은 양의 수분을!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진료를!

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 비만, 임산부나 노인 분들은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